

제 60차 여성정책포럼
The 60th Women's Policy Forum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

Reality of Unwed Mothers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일시 2010. 2. 24 (수) 오후 2시 ~ 6시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

Date | 2:00 p.m.-6:00 p.m. February 24, 2010

Venue |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Press Center

Hosted by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ponsored by |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KUMS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 60차 여성정책포럼
The 60th Women's Policy Forum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

Reality of Unwed Mothers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일시 2010. 2. 24 (수) 오후 2시 ~ 6시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

Date | 2:00 p.m.-6:00 p.m. February 24, 2010

Venue |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Press Center

Hosted by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ponsored by |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KUM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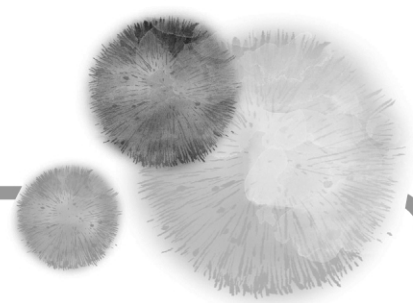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식	<p>사 회 :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p> <p>인사말 :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p>
14:10~15:10	발 표	<p>사 회 : 허남순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발표 1.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p>발표 2. 자녀를 입양보낸 미혼모의 상실 최승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p>
		<p>발표 3.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정책팀장)</p>
		<p>발표 4.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 지원 방안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15:10~15:40	휴 식	
15:40~16:50	토 론	<p>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p> <p>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p> <p>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p> <p>임애덕 (애서원 원장)</p> <p>정숙영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p> <p>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p>
16:50~17:50	종합토론	
17:50~18:00	폐 회	

13:30~14:00	Registration	
14:00~14:10	Opening Session	<p>Presider: Jungim Hwang (Director, KWDI)</p> <p>Welcoming Remarks: Taehyun Kim (President, KWDI)</p>
14:10~15:10	Session	<p>Moderator: Nam-Soon Huh (Professor, Hallym University)</p> <p>Session 1. Social Prejudice against Unwed Mothers and Related Statistics Mijeong Lee (Research Fellow, KWDI)</p> <p>Session 2. Unwed Mother's Grief after Giving up a Child to Adoption Seunghye Choi (Professor, Pyeongtaek University)</p> <p>Session 3. Counselling Services of Adoption Agency Experienced by Unwed Mothers Houng Suk Choi (PR Manager, Korea Unwed Mothers & Families Association)</p> <p>Session 4. Lives of Unwed Mothers Raising Their Own Children and Measures to Support Their Self-Reliance Hyeyoung Kim (Research Fellow, KWDI)</p>
15:10~15:40	Break	
15:40~16:50	Panel Discussion	<p>Youngtae C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p> <p>Yeri Shin (Editorial Writer, JoongAng Ilbo)</p> <p>Myung Sook Lee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ight, Korean Bar Association)</p> <p>AD Caritas Im (Director, Aesuhwon Sister's Heights)</p> <p>Sook Young Jung (Director General,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p> <p>Eun Hee Cho (Assistant Mayor, Seoul Metropolitan Governmnet)</p>
16:50~17:50	Floor Discussion	
17:50~18:00	Closing Remarks	



□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	1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녀를 입양보낸 미혼모의 상실	27
최승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	47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정책팀장)	
□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 지원 방안	67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토론문	101
■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에 대한 토론문	
- 미혼모관련 통계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 -	103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자녀를 입양 보낸 미혼모들의 상실’에 대한 토론문	105
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에 대한 토론문	109
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문	113
임애덕 (애서원 원장)	
■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문	117
정숙영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	
■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문	123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련통계 부재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전국차원의 포괄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¹⁾ 미혼모에 대한 포괄적 통계자료가 부재한 이유는 정부나 연구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미혼모들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혼모는 분명히 우리사회에 존재해왔음도 불구하고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미혼모는 정책의 주요대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가 미혼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입양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입양을 보내 국가이다. 70-80년대에 해외로 입양된 많은 아기들은 성년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 방문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입양인에 대한 이야기가 드물지 않게 신문지면을 장식한다. 이들 어머니의 대다수는 미혼모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의 존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말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다수의 어머니인 미혼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미혼모와 관련된 포괄적 통계의 부재는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자녀양육 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복지를 입양으로 해결하였고 입양의 대안으로 이들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게을리하였다.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을 모색하기에 앞서서 가난 등의 이유로 아동이 친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과 규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미혼모 가족의 해체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해외입양이 국내외 비판에 직면하였을 때 대안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제1의 정책으로 바로 내세웠다는 것은 정부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국제협약과 규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입양의 제1의 대안은 미혼모 가족지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사회는 지금도 매년 1,000명이 넘는 자국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내고 있다. 한국사회는 언제까지 미혼모 가족을 외면하면서 이러한 자기모순에 빠져 있을 것인가? 변화가 요구된다. 입양 대신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정책적 지원에 앞선 첫 번째 작업은 정책 대상의 규모파악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들에 대한

1) 본 원고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의 지원으로 2008년-2009년도에 수행한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 연구: 해외입양, 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포괄적 통계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조사자료에서 미혼모 관련 통계 수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정부통계나 정부자료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시도하려고 한다.

Ⅱ. 미혼모의 정의

미혼모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의미하지만,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된 개인의 혼인지위는 변화하기 때문에 인생주기에 어느 한 시점에서 미혼모였던 사람이 후에 결혼하여 기혼자되기도 하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이 여성은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연락을 단절하고 혼자 키울 수도 있고, 함께 동거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모이다. 우리나라의 한부모 지원정책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모는 부양자가 있다고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미혼자 일수도 있고, 기혼자 일 수도 있다. 기혼남성과 관계를 맺는 미혼모 여성을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부일처제를 적법한 결혼형태로 수용하고 있지만 전통적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남성 중 법적 혼인상태의 배우자 외에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혼외 관계의 자녀가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자녀는 법적으로 생물학적 어머니의 자녀이지만 어머니의 자녀는 아니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머니는 미혼모이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 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들 가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규모의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이들을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적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과 혼인 상태에 있는 생물학적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인 미혼모 규모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절박한 이유는 없다.

또 다른 부류의 미혼모는 이혼·사별·별거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이다.²⁾ 이

2) 또 다른 가능성은 기혼인 여성이 혼인의 자를 출산한 경우이다. 이 경우 혼인의 자의 생물학적 부모는 자녀의 법적지위 측면에서 볼 때 미혼모와 미혼부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혼남성의 혼인의 자의 경우도 자녀 중심에서 보면 부모가 미혼모 미혼부이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이런 경우의 기혼여성, 기혼남성을 미혼모, 미혼부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혼인의 자'의 부모라는 관점에서 지칭된다.

들의 경우 혼인 관계에서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미혼모의 자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여성의 경우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일부 자녀는 혼인상태에서, 다른 일부 자녀는 미혼인상태에서 출생한 것이다. 이 경우 자녀 출산 당시 상황에 따라서 어머니가 미혼모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점이다.

혼인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연락을 단절하고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남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 여성은 과거에 미혼모의 삶을 살았지만, 기혼여성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미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새로 꾸린 가정에 동반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성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드물었던 시기 결혼은 여성 입장에서 보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는데, 바로 경제적 지원 수단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50년대 한국전쟁과 60-70년대 빈곤의 시기를 살았던 미혼·사별·별거 상태의 적지 않은 여성들이 중혼(重婚) 상태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남성에게 의존하며 자녀를 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혼모’라는 용어에는 도덕적 단죄가 포함되어 있다. 자녀출산은 결혼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에 대한 비난이 내포되어 있다.³⁾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미혼모들은 양육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혼인의 자와 미혼모의 지위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남성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던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자녀의 법적 신분등록과 관련하여 남성에게 크게 의지하던 경향이 감소하였다.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혼을 ‘영구적인 남녀의 결합’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변화하고 있다. 이혼, 별거, 재혼의 증가는 개인의 혼인상태와 이에 따른 가족구성과 형성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혼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가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혼모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크게 약화되었다. 과거에는 ‘미혼모와 자녀’를 가족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가족구성에 있어서 혼인이나 양부모(兩父母)를 규범적 필수 요건으로 생각

3) 미혼모라는 용어에 내포된 비난은 또한 우리사회 성(性)의 이중규범을 반영한다. 여성의 혼외출산에 비해 남성의 혼외출산에 대해서는 관용의 정도가 높아 기혼인 상태에서 혼외 자를 출산한 남성을 지칭하는 비난조의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 사람의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취한 성적(性的) 행동의 결과에 대한 비난은 전부 여성의 몫이다.

했기 때문이다. 90년대 말 자녀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한 미혼모 여성은 자녀를 입양 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여성은 양부모(兩父母) 존재를 가족의 주요 구성요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혼인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경향이 약화되면서 혼외출산에 대한 일반인은 도덕적 비난보다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책임감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복지 및 정책적 차원의 관심도 도덕적으로 미혼모 여성을 ‘교화시킨다’는 차원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요약하면, 혼인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을 미혼모라고 지칭하는데,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개인의 혼인상태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미혼모로 지내는 시기는 이에 따라 일시적이기도 하고 지속적이기도 하다. 미혼모 통계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해야 하는 정책적 관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전국조사자료와 정부통계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미혼모 규모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III. 전국조사자료에 나타난 미혼모 수

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규모 조사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여성부 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있다. 이들 조사의 목적이 전국의 인구관련사항, 가족사항, 여성의 삶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전국차원의 조사 자료는 부재하다.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연구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자료에 근거하여 전국 미혼모 수를 인용하곤 했지만, 연구진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동 조사 자료에는 미혼모 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조사자료에 미혼모 수가 부재한 이유는 정부나 연구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미혼모 스스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미혼모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미혼모가 출산을 전후로 하여 임시 거주하는 미혼모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수행한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것이다. 이들 자료는 출산과 자녀 양육에 관련된 도움을 얻기 위해 미혼모시설을 찾아간 미혼모 일부에 대한 것이다. 출산을 전후로 미혼모시설 및 지원기관을 접촉하지 않은 미혼모에 대한 통계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조사자료에 나타난 미혼모와 관련된 통계 수집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1.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자료에는 미혼모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연구에서는 미혼모 통계가 인구센서스를 통해서 제공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오해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서 비롯된다. 동 보고서에는 가구주의 혼인상태에 따라 세대구성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I-1>에 제시되어 있는 ‘세대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가구’ 표에서는 가구주가 미혼이면서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근거하면 가구주가 미혼이면서 ‘모+자녀’로 구성된 세대이면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는 가구로 생각하게 된다. 아래 표에 따르면 2005년도 조사에서 133,234가구의 가구주 미혼·‘모+자녀’ 가구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미혼모 가구로 인식하기 쉬운 것이다.

한부모가구 중 가구주의 결혼지위가 미혼인 경우가 1995년 90,986가구, 2000년 117,764가구, 2005년 133,234가구로 나타나는데,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들 수치가 미혼모 가구의 수치인 것 같은 착각을 제공한다. 센서스 자료 조사방법을 검토한 결과 이들 숫자가 미혼모 가구 수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I-1>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다양한 세대구성을 조합하여 가공한 수치이다. 위 표에서 세대구성이 ‘모+자녀’이며 ‘미혼가구’인 경우는 미혼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가구를 의미하기보다는 자녀가 미혼이면서 가구주로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위 표는 개별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혼여부와 자녀유무 정보를 입수하여 정리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가구주와 해당 가구의 세대구성 변수를 교차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미혼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위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⁴⁾

〈표 I-1〉 가구주 혼인상태별 세대구성 분포

(단위: 명)

세대구성별	2005년				
	일반가구(가구)	미혼(가구)	유배우자(가구)	사별(가구)	이혼(가구)
합계	15,887,128 (100.0%)	2,030,256 (100.0%)	11,120,410 (100.0%)	1,832,308 (100.0%)	904,154 (100.0%)
부+자녀	286,923 (1.81%)	9,218 (0.45%)	64,148 (0.58%)	73,886 (4.03%)	139,671 (15.45%)
모+자녀	1,083,020 (6.82%)	133,234 (6.56%)	263,716 (2.37%)	427,209 (23.32%)	258,861 (28.63%)

자료: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주: 가구주가 미혼이며 ‘모+자녀’ 세대를 구성하는 133,234 가구는 미혼모 가구가 아님.

4)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다음 <그림 I-1>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에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자녀출산 경험을 묻는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문항 ‘20 혼인상태’를 보면 조사표는 응답자가 미혼인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문항에 답하지 않고 건너뛰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조사표 설계는 혼인제도 밖에서의 출산에 대한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⁵⁾

통계청에 의하여 모든국민은 이 조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원 모든 내용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혈연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 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세는 나이 16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 [15 ~ 21]

<p>20 혼 인 상 태</p> <p>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합니다.</p>	<p>① 미혼 → 21번으로</p> <p>② 배우자 있음</p> <p>③ 사별</p> <p>④ 이혼</p>
<p>21 혼 인 년 월</p> <p>결혼(초혼)은 언제 하였습니까? • 재혼의 경우 초혼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p>	<p>□□□□년 □□월</p> <p>① 양력 ② 음력</p>

기혼(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여성만 기입합니다. [22 ~ 23]

<p>22 출 생 아 수</p> <p>부인이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직접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p>	<p>남 □□명 여 □□명</p>
<p>부인이 낳은 자녀 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p>	<p>남 □□명 여 □□명</p>
<p>부인이 낳은 자녀 중에서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p>	<p>남 □□명 여 □□명</p>
<p>부인이 낳은 자녀 중에서 사망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p>	<p>남 □□명 여 □□명</p>
<p>23 추가 계획 자녀 수</p> <p>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합니다.</p>	<p>① 있음 → □□명</p> <p>② 없음</p>

5) 통계청이 조사표를 이와 같이 구성한 이유는 미혼자에게 자녀유무를 묻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경우 매우 적어서 미혼자 자녀에 대한 문항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 응답기피도 문제이지만, 통계청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약화되고 자신을 미혼모라고 밝히는 것을 꺼리지 않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미혼여성의 자녀출생 경향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자녀 출산시기(기혼여성만 응답)

자녀를 언제 출산하였습니까? (직접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기입)

①번 가구원	②번 가구원	③번 가구원	④번 가구원	⑤번 가구원
첫째 자녀	첫째 자녀	첫째 자녀	첫째 자녀	첫째 자녀
□□□□년	□□□□년	□□□□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① 양력 ② 음력	① 양력 ② 음력	① 양력 ② 음력	① 양력 ② 음력	① 양력 ② 음력
막내 자녀	막내 자녀	막내 자녀	막내 자녀	막내 자녀
□□□□년	□□□□년	□□□□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① 양력 ② 음력	① 양력 ② 음력	① 양력 ② 음력	① 양력 ② 음력	① 양력 ② 음력

주: 위 조사표에서 문항20에서 혼인상태를 묻는데 미혼인 사람은 문항 22의 자녀의 출생과 관련된 사항을 응답하지 않고 건너뛰게 설계되어 있다.

[그림 I-1]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인구센서스 조사표로는 미혼인 사람의 자녀유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조사표는 자녀의 출생을 혼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유배우자·이혼·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만 자녀 출생과 관련된 사항을 묻고 미혼인 여성에게는 묻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미혼모의 자녀를 파악하는 방법을 불가능하다. 자녀의 출산시기를 묻는 항목에서도 응답자를 기혼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미혼모가 응답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이 지속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통계청은 미혼자의 출산규모를 파악하려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혼모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자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미혼모 관련 포괄적 통계자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하고 있다.

2. 여타 전국조사자료

여성과 가족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라 할 수 있는 전국규모의 가족조사인 2005년 가족실태조사, 2008년 1차조사가 완료된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도 미혼모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들 조사는 가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수준의 조사이지만 미혼모 실태나 미혼모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설문 대상과 문항이 매우 제한적이다. 미혼모에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문항으로 간주되는데, 이유는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높고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제외되고 있다.

향후 미혼모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혼모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대상 집단인 미혼모의 수와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향후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사에서 미혼모와 관련된 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Ⅳ. 정부통계자료에 나타난 미혼모 수

정부통계자료를 검토하면서 미혼모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미혼모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주는 자료는 통계청의 출생아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만건수, 미혼모시설 이용자, 입양아동 통계이다. 이들 정부통계를 검토하면서 미혼모 수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논의한 후, 전국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보려고 한다.

1. 출생통계

<표 I-2>는 우리나라 출생아 통계인데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 자’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부터 출생아 수는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1981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혼인외 자’의 수치는 감소하는데 이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부분이 크다. 혼인외 자의 비율은 90년대 중반까지 약 1.0%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과 1998년 0.6%와 0.7%를 기록한다. 2000년 이후부터 혼외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1.6%로 1981년 이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2>에 나타난 출생아수 통계에서 ‘미상’은 영아사망자와 버려진 아이들의 숫자인데, 이들의 숫자가 거의 잡히지 않다가 1999년 갑자기 1,362명이 된다. 미상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영아사망자 수 파악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아 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제출된 출생신고서 내용 집계를 통해서 얻어진다. 이러한 출생아 집계 방식에서는, 출생아의 신고가 지연되거나 신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출생이후 사망 가능성이 높은 신생아는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계 당국이 영아사망자를 역추적한 결과를 출생통계에 반영한 것이 1999년부터 출생아 통계의 미상 부분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⁶⁾

6) 2007년도 영아사망율은 영아 1,000명당 3.5 명으로 영아사망자 수는 1,703명이다. 미상 중 나머지 437명은 버려진 아이인데, 이들 중 미혼모 자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I -2〉 부모의 법적혼인상태별 출생아수

(단위: 명, %)

년	총계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미상	혼인외의 자 비율
1981	867,409	857,668	9,741	0	1.1
1982	848,312	839,310	9,002	0	1.1
1983	769,155	761,122	8,033	0	1.0
1984	674,793	667,930	6,863	0	1.0
1985	655,489	648,844	6,645	0	1.0
1986	636,019	629,462	6,557	0	1.0
1987	623,831	617,972	5,859	0	0.9
1988	633,092	627,841	5,251	0	0.8
1989	639,431	634,270	5,161	0	0.8
1990	649,738	643,585	6,151	2	0.9
1991	709,275	702,014	7,259	2	1.0
1992	730,678	722,374	8,304	0	1.1
1993	715,826	707,021	8,799	6	1.2
1994	721,185	711,904	9,272	9	1.3
1995	715,020	706,247	8,748	25	1.2
1996	691,226	684,890	6,290	46	0.9
1997	668,344	664,148	4,196	0	0.6
1998	634,790	630,362	4,428	0	0.7
1999	614,233	608,155	4,716	1,362	0.8
2000	634,501	627,336	5,540	1,625	0.9
2001	554,895	547,779	5,330	1,786	1.0
2002	492,111	483,152	5,184	3,775	1.1
2003	490,543	480,110	6,082	4,351	1.2
2004	472,761	463,245	6,116	3,400	1.3
2005	435,031	425,653	6,459	2,919	1.5
2006	448,153	438,735	6,805	2,613	1.5
2007	493,189	483,275	7,774	2,140	1.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8

주: 미상은 영아사망자, 버려진 아이들의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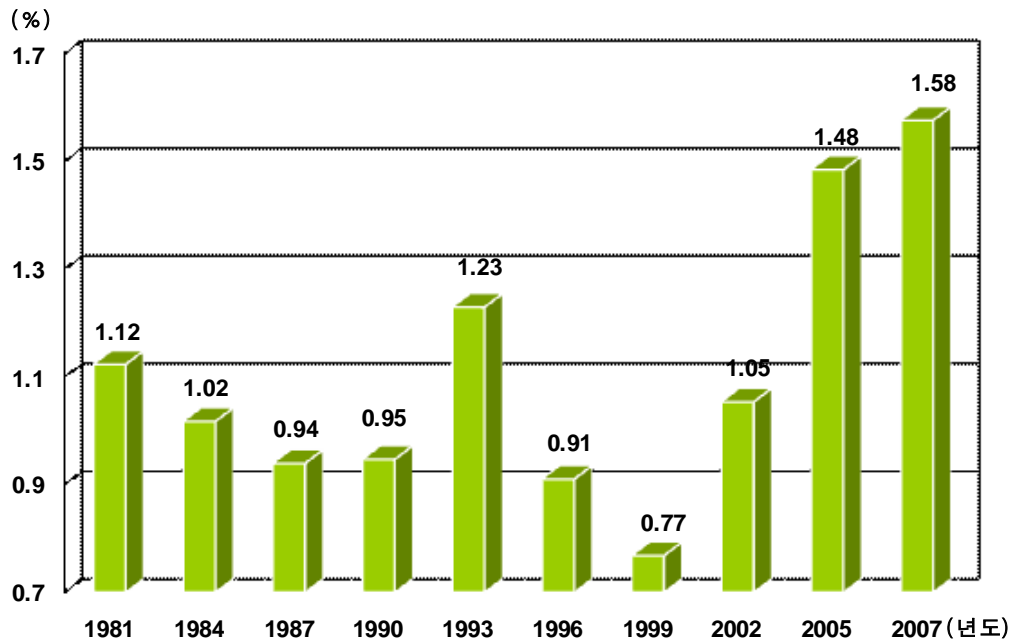
출생신고서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 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	① 남	① 혼인중의 출생자
		한자					② 여	② 혼인외의 출생자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한국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①자택②병원③기타		시(도) 구(군) 동(읍,면) 번지의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사항								
④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 부 ② 모 ③ 동거친족 ④ 기타(의 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그림 I-2] 출생신고서 일부 : 혼인중·혼인외의 자 기입란

<그림 I-2>은 출생신고서 양식의 일부인데, 양식 오른쪽 상단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외의 출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출생신고서 작성 설명에 따르면 ‘혼인외자’는 아버지와 관련된 사항을 기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혼외출생아 비율은 2%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혼외 임신의 극히 일부분이 출산으로 이어지고 혼외임신 거의 대부분은 낙태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실시된 의료기관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시술 건수는 총342,433건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기혼자 198,515건, 미혼자 143,918건이다. 미혼자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전체의 42%를 구성하고 있다(고려대학교·보건복지부 2005). 혼인상태별 인공임신중절률을 보면 기혼여성은 1,000명당 28.6건, 미혼여성은 31.6건으로 미혼여성 집단에서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2005년 혼외출생아 수는 총 6,459명으로, 같은 해 미혼여성 총 임신건수 150,467 건 중 4.3%만이 출산으로 이어지고 혼외임신의 거의 대부분인 95.7%가 낙태되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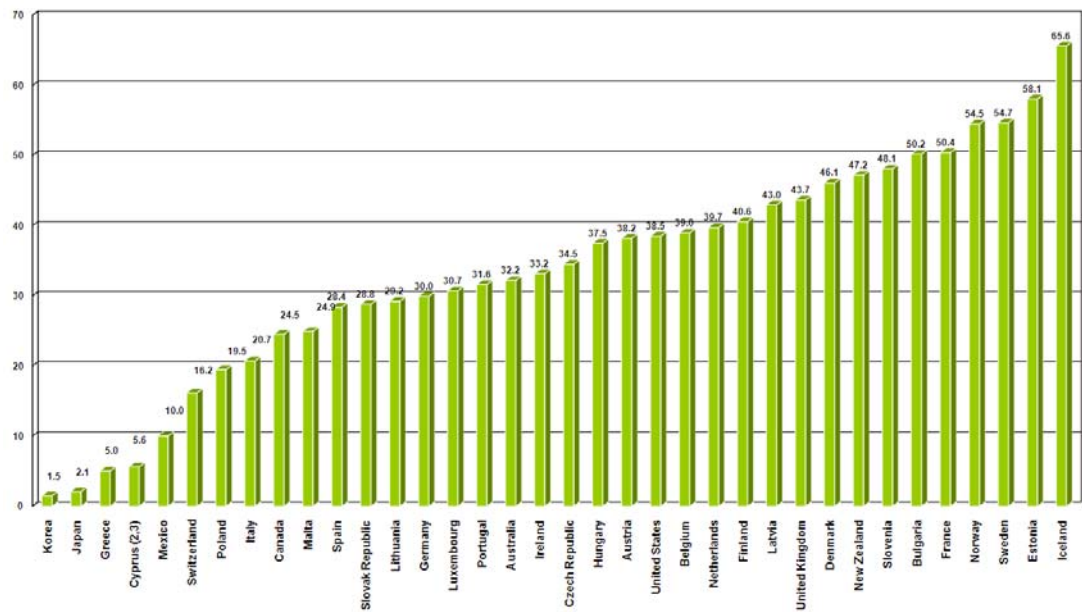
7) 혼외 임신이 혼인 중의 출산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없다는 가정에서 계산된 것이다.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8

[그림 I -3] 혼인외의 자 비율

<그림 I-3>은 1981년부터 2007년까지의 혼외출생아 비율을 보여주는데, 해당시기 혼외출생아 비율(non-marital birth rates)은 0.6%에서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여타 국가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일본도 한국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선진국의 경우 혼외출생아 비율에는 동거관계 즉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포함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동거관계에서의 출생과 미혼모에게서 출생한 경우를 분리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동거관계의 출생아보다는 미혼모에게서 출생한 아동에게 지원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방식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외출생아로 집계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혼외출생아 비율(non-marital birth rates)은 현재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 -4] 최근 국가별 혼외출생아 비율(2007년)

<표 I -3> 최근 국가별 혼외출생아 비율(2007년)

국가명	비율	국가명	비율
Korea	1.5	Czech Republic	34.5
Japan	2.1	Hungary	37.5
Greece	5.0	Austria	38.2
Cyprus (2,3)	5.6	United States	38.5
Mexico	10.0	Belgium	39.0
Switzerland	16.2	Netherlands	39.7
Poland	19.5	Finland	40.6
Italy	20.7	Latvia	43.0
Canada	24.5	United Kingdom	43.7
Malta	24.9	Denmark	46.1
Spain	28.4	New Zealand	47.2
Slovak Republic	28.8	Slovenia	48.1
Lithuania	29.2	Bulgaria	50.2
Germany	30.0	France	50.4
Luxembourg	30.7	Norway	54.5
Portugal	31.6	Sweden	54.7
Australia	32.2	Estonia	58.1
Ireland	33.2	Iceland	65.6

자료: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주: 멕시코는 1999년 자료이며 오스트리아, 캐나다는 2005년 아이슬란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은 2006년 자료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만건수

〈표 I-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분만 건수

(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세 미만	2,911 (0.63)	2,277 (0.48)	2,034 (0.44)	1,622 (0.38)	1,444 (0.33)	2,336 (0.49)
19~24세	38,266 (8.28)	33,932 (7.20)	30,315 (6.59)	24,193 (5.69)	21,299 (4.87)	26,152 (5.45)
25~29세	201,106 (43.54)	195,189 (41.40)	176,660 (38.41)	155,002 (36.46)	151,888 (34.75)	166,129 (34.61)
30~34세	175,651 (38.03)	188,945 (40.07)	193,733 (42.12)	183,700 (43.21)	192,199 (43.97)	212,730 (44.32)
35~39세	36,011 (7.80)	39,618 (8.40)	43,581 (9.47)	46,029 (10.83)	53,147 (12.16)	65,091 (13.56)
40~44세	5,551 (1.20)	5,634 (1.19)	5,648 (1.23)	5,714 (1.34)	6,019 (1.38)	7,224 (1.51)
45세 이상	253 (0.05)	279 (0.06)	280 (0.06)	275 (0.06)	277 (0.06)	301 (0.06)
기타	2,179 (0.47)	5,612 (1.19)	7,734 (1.68)	8,646 (2.03)	10,823 (2.48)	2 (0.00)
㉠ 총분만건수	461,928 (100.0)	471,486 (100.0)	459,985 (100.0)	425,181 (100.0)	437,096 (100.0)	479,965 (100.0)
㉡ 총출생아수	492,111	490,543	472,761	435,031	448,153	493,189
㉢ - ㉠	30,183	19,057	12,776	9,850	11,057	13,22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 각년도

주: 기타는 시설수용자 및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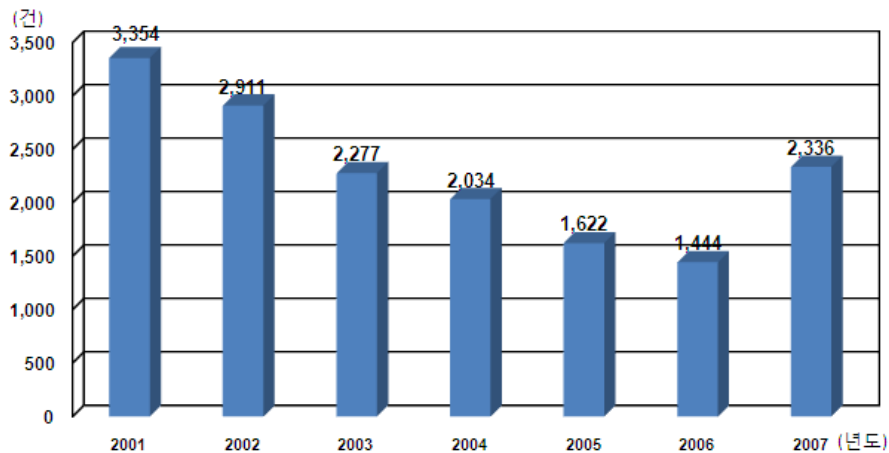
총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만 건수, 총출생아수는 통계청 통계

피보험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이들의 혼인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만건수 자료를 통해서도 미혼모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다. 해당 자료에서 피보험자 혼인상태만 파악될 수 있다면 미혼모의 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항목이 없다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미혼모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해당 자료에 출산 시 혼인상태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I-4>에는 연령별 분만건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각년도 총분만 건수는 통계청의 총출생아수와 유사한데, 분만 건수가 총출생아 수보다 2002년에는 3만여 건, 2003년 2만여 건, 2004년 이후에는 1만여 건 정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중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설수용자, 외국인 등의 분만건수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지 않아서 별도로 분류했다고 한다. 2007년에 기타가 2건으로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07년 자료부터는 산모의 생년월일을 통해 연령을 파악하여 기타 부분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기타’에 해당되는 사람 중 미혼모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들이 어느 정

도로 포함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는 없다.

2008년도 여성의 초혼 평균연령이 28.3세임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19세 미만 분만 건수를 미혼모 출산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 I-5>에 제시된 19세 이하 여성의 혼인건수를 보면 해당 연령층의 분만 건수보다 훨씬 많아서 이러한 추측은 의미가 없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 각년도

[그림 I-5] 19세 미만 분만 건수

<표 I-5> 연도별 혼인부부 연령별 혼인 건수

(단위: 건)

아내의 연령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19세 이하	6,880	5,718	5,095	5,022	5,805	7,722	6,068	6,483
20세~24세	73,536	64,851	58,407	53,364	48,273	48,865	44,386	37,333
25세~29세	157,536	150,767	147,710	145,447	146,469	158,008	167,601	155,981
30세~34세	41,422	44,277	48,330	53,049	57,305	62,377	68,192	69,272
35세~39세	17,584	16,999	17,762	20,356	22,077	22,743	24,989	25,450
40세~44세	11,501	11,621	12,729	14,867	15,606	13,613	13,855	13,582
45세 이상	9,945	10,602	12,440	16,493	18,769	17,306	18,468	19,614
미상	3	42	30	0	0	0	0	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8

3. 미혼모 시설의 미혼모 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사회경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는 미혼모 시설에 의존하는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미혼모 시설, 공동생활가정,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이다. 미혼모시설은 미혼모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 숙식,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통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 거주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양육미혼모를 위한 시설로 1년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6개월씩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주거시설이고,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 학대 피해자 여성과 자녀를 위한 피난처이기에 미혼모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혼모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전적으로 미혼모를 위한 시설 공간이다. 모자시설과 모자보호시설은 미혼모 가족뿐만 아니라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설인데, 본 연구진의 전화조사에 의하면 미혼모 세대는 전체의 세대의 10.9%를 구성하고 있다.⁸⁾ 이들 시설의 입소자 다수는 이혼 이후의 한부모가구인데, 최근 미혼모의 전화 상담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입소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혼모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출산 전후의 미혼모를 위한 시설인데, <표 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혼모 시설의 입소인원은 2003년 2,246명에서 2008년 2,991명으로 증가하였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5년 202명에서 2008년 391명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도부터 2008

8) 41개 모자보호시설 중 36개 모자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혼모 세대 수 조사결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총 734세대 중 80세대가 미혼모라고 응답함.

서울					
A	B	C	D	E	F
총 5세대 중 4세대	총 32세대 중 16세대	총 20세대 중 4세대	총 20세대 중 6세대	무응답	무응답
부산					
A	B	C	D	E	F
총 13세대 중 3세대	총 13세대 중 0세대	총 38세대 중 2세대	총 7세대 중 0세대	총 15세대 중 2세대	총 22세대 중 3세대
대구					인천
A	B	C	D	E	A
총 50세대 중 5세대	총 27세대 중 5세대	총 30세대 중 2세대	무응답	무응답	총 20세대 중 1세대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A	A	A	A	B	A
총 22세대 중 4세대	총 22세대 중 1세대	총 24세대 중 1세대	총 28세대 중 2세대	무응답	총 24세대 중 1세대
전북				전남	
A	B	C	D	A	B
총 24세대 중 2세대	총 17세대 중 0세대	총 18세대 중 0세대	총 16세대 중 1세대	총 24세대 중 1세대	총 12세대 중 0세대
경북					충북
A	B	C	D	E	A
총 20세대 중 3세대	총 19세대 중 3세대	총 24세대 중 2세대	총 20세대 중 0세대	총 18세대 중 4세대	총 24세대 중 0세대
충남		경남		제주	
A	B	A	B	A	
총 19세대 중 0세대	총 13세대 중 1세대	총 20세대 중 0세대	총 30세대 중 1세대	총 20세대 중 4세대	

년도에 이르는 시기 미혼모 시설 수용인원은 각 해당년도의 총 혼외출생아 수의 31%에서 43%까지 수용하고 있다. 나머지 57%에서 69%의 미혼모들은 미혼모 시설을 거치지 않고 출산을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모 시설에서는 출산에 임박한 임산부를 수용하는데, 다수가 출산이후 입양을 보내거나 양육을 선택하는 결정을 이곳에서 하게 된다. 미혼모가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데, 이유는 출생신고가 된 이후에는 국내에서 입양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는 영아유아 다수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1-6〉 미혼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연 입소자 현황

년도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연입소 인원	시설 수	연입소 인원	시설 수	연입소 인원	시설 수	연입소 인원	시설 수	연입소 인원
2003	40	3,500	4	209	14	2,234	10	2,246	5	—
2004	40	3,451	4	213	14	1,818	11	1,919	9	—
2005	40	3,413	4	203	14	2,016	18	2,442	9	202
2006	41	3,464	4	197	14	1,909	20	2,243	16	212
2007	41	3,383	4	177	14	1,824	25	2,948	15	252
2008	41	3,396	3	155	14	1,890	27	2,991	19	39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2009 내부자료

4. 입양아동 통계와 미혼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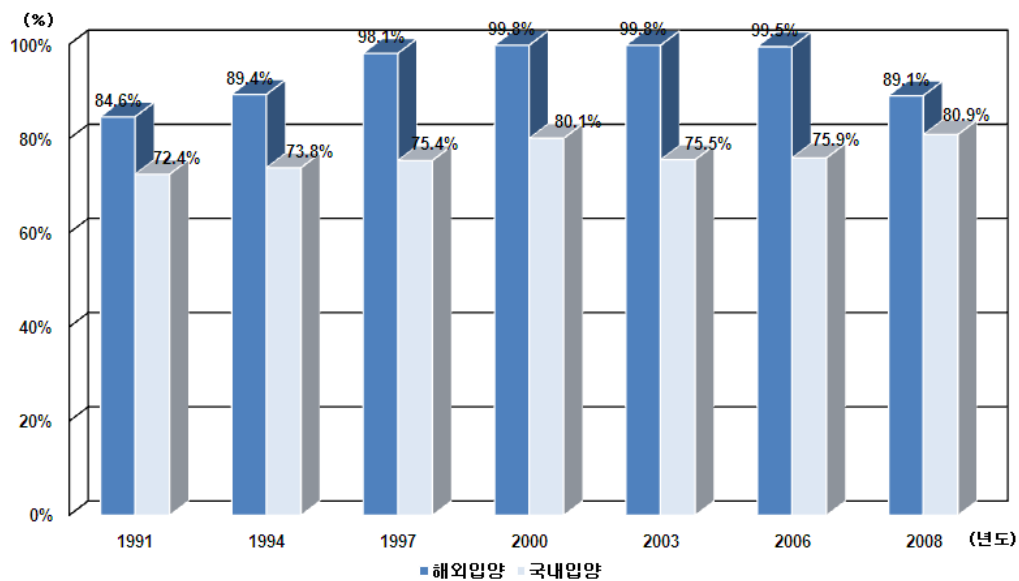
〈표 1-7〉 국내외 입양아 수와 미혼모 자녀 비율

년도	국내입양			해외입양		
	입양아	미혼모자녀	미혼모자녀 비율(%)	입양아	미혼모 자녀	미혼모자녀 비율(%)
1991	1,241	899	72.4	2,197	1,859	84.6
1992	1,190	883	74.2	2,045	1,834	89.7
1993	1,154	874	75.7	2,290	2,106	92.0
1994	1,207	891	73.8	2,262	2,022	89.4
1995	1,025	680	66.3	2,180	2,019	92.6
1996	1,229	906	73.7	2,080	1,916	92.1
1997	1,412	1,064	75.4	2,057	2,018	98.1
1998	1,426	1,067	74.8	2,443	2,271	93.0
1999	1,726	1,369	79.3	2,409	2,253	93.5
2000	1,686	1,350	80.1	2,360	2,356	99.8

년도	국내입양			해외입양		
	입양아	미혼모자녀	미혼모자녀 비율(%)	입양아	미혼모 자녀	미혼모자녀 비율(%)
2001	1,770	1,428	80.7	2,436	2,434	99.9
2002	1,694	1,344	79.3	2,365	2,364	100.0
2003	1,564	1,181	75.5	2,287	2,283	99.8
2004	1,641	1,250	76.2	2,258	2,257	100.0
2005	1,461	1,095	74.9	2,101	2,069	98.5
2006	1,332	1,011	75.9	1,899	1,890	99.5
2007	1,388	1,045	75.3	1,264	1,251	99.0
2008	1,306	1,056	80.9	1,250	1,114	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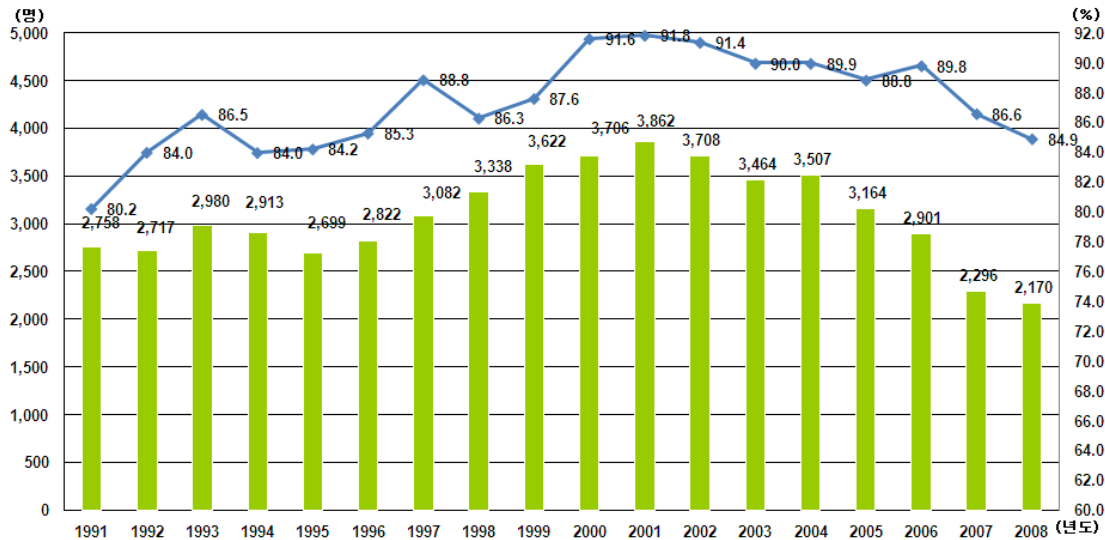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8), 국내입양현황보고서 재구성

<표 I-7>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유한 자료에서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 중 미혼모 자녀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2,556명인데 이중 미혼모 아동은 2,170명으로 84.9%를 차지한다.



[그림 I-6] 국내외 입양 아동 중 미혼모자녀 비율

<그림 I-6>은 해외입양과 국내입양 아동 중 미혼모 자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입양에서 미혼모 자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입양현황통계, 발생유형별 국내외 입양현황 2009

[그림 I-7] 국내외 입양된 미혼모 자녀 수

<그림 I-7>은 국내외로 입양된 미혼모 아동 수와 전체입양아 중 이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I-8> 연도별 사법연감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내외 입양아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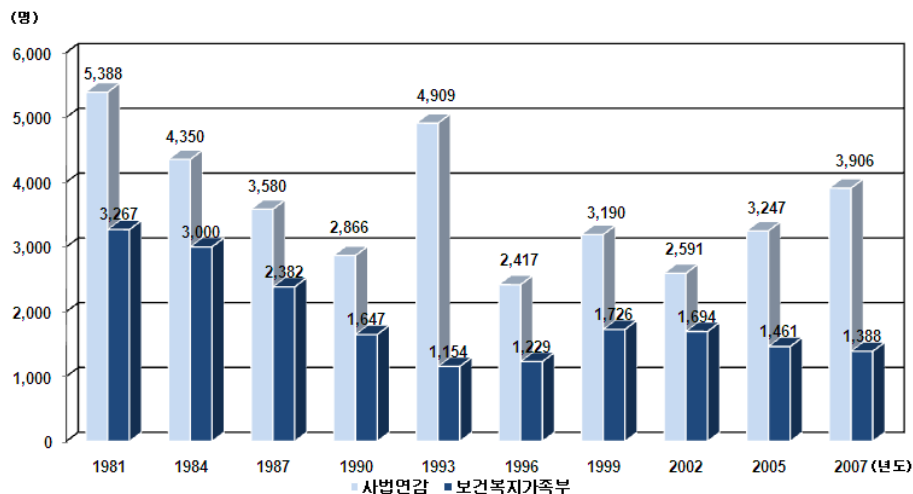
년도	입양아 수		년도	입양아 수	
	사법연감	보건복지가족부		사법연감	보건복지가족부
1981	5,388	3,267	1995	2,450	1,025
1982	5,722	3,298	1996	2,417	1,229
1983	4,012	3,004	1997	2,738	1,412
1984	4,350	3,000	1998	2,967	1,426
1985	3,713	2,855	1999	3,190	1,726
1986	3,897	2,854	2000	3,177	1,686
1987	3,580	2,382	2001	3,188	1,770
1988	3,678	2,324	2002	2,591	1,694
1989	3,723	1,872	2003	2,337	1,564
1990	2,866	1,647	2004	2,640	1,641
1991	3,051	1,241	2005	3,247	1,461
1992	3,601	1,190	2006	3,961	1,332
1993	4,909	1,154	2007	3,906	1,388
1994	3,324	1,207	—	—	—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76-2009, 보건복지가족부, 입양현황통계2008

주: 2005년 개정민법에 의해서 기존의 양자제도와는 별개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는 부칙에 의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사법연감의 2008년 통계부터 보통양자(4,034명), 입양특례(49명), 친양자(1,779)로 구분하여 발표함.

앞에서 논의한 것 같이 입양과 관련된 법적 규제는 민법에 의한 것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입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국내외 입양아 중 미혼모 자녀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 입양을 규제하는 또 다른 주요 축은 민법에 근거한 입양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민법에 근거한 보통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안정적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과 거리가 있다. 보통입양제도는 계약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하는데, 입양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姓)을 유지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된다. 또 보통입양을 통해 입양된 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통입양은 불안전 입양으로 분류된다.



[그림 I-8] 사법연감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내외입양아 수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내입양은 입양아동의 법적 신분등록을 위해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08년도 사법연감 자료에 수록된 입양특례에 의한 입양은 49건에 불과하여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유한 국내입양 1,306건의 3.8%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입양특례에 의한 국내입양 거의 대부분이 입양아동을 친생자로 신고하는 비밀입양인 것을 알 수 있다.

민법에 근거한 입양사례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시하는 사법연감의 입양통계로는 미혼모 자녀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수 없다.⁹⁾

9) 사법연감에 등록된 입양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나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 입양 중 어느 정도의 사례가 미혼모 자녀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보통입양의 목적은 가(家)를 잇기 위한 것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사회보장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가 가족관계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입양을 통한 가족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다. 소자녀 출산, 가족형성에 있어서 혈통과 가문 계승의 중요성 감소, 양성불평등 완화, 호주제 폐지로 가(家)를 잇기 위한 입양은 감소 추세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양육미혼모 수 추정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는 미혼모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미혼모 시설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피신하여 출산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미혼모 스스로 자녀양육에 대한 엄두를 내기 어려운 시절, 시설을 통해서 미혼모의 많은 자녀가 국내외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혼모들은 과거와 달리 자녀 양육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혼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것을 사회에서 묵묵히 승인하던 시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물론, 입양에 의존하며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지 않고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비난은 면제되기 어렵다. 양육 미혼모의 증가라는 현실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혼모들이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자녀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표 I-9〉 연도별 미혼모 양육 아동 추정치

(단위: 명)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① 혼인외 출생자	10,017	11,021	11,779	12,185	11,447	9,112
② 출생통계	7,259	8,304	8,799	9,272	8,748	6,290
③ 미혼모 입양아동	2,758	2,717	2,980	2,913	2,699	2,822
④ 미혼모 양육 아동	651	727	789	829	790	638
⑤ 미확인 아동	6,608	7,577	8,010	8,443	7,958	5,652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① 혼인외 출생자	7,278	7,766	8,338	9,246	9,192	8,892
② 출생통계	4,196	4,428	4,716	5,540	5,330	5,184
③ 미혼모 입양아동	3,082	3,338	3,622	3,706	3,862	3,708
④ 미혼모 양육 아동	517	559	692	795	1,011	1,438
⑤ 미확인 아동	3,679	3,869	4,024	4,745	4,319	3,746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① 혼인외 출생자	9,546	9,623	9,623	9,706	10,070	10,533
② 출생통계	6,082	6,116	6,459	6,805	7,774	8,363
③ 미혼모 입양아동	3,464	3,507	3,164	2,901	2,296	2,170
④ 미혼모 양육 아동	2,038	2,553	3,050	3,077	3,192	3,339
⑤ 미확인 아동	4,044	3,563	3,409	3,728	4,582	5,024

자료: ① 혼인외 출생자 = ② + ③

② 혼인외 출생자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혼인외의 자” 2009

③ 입양아동 - 보건복지가족부, ‘국내외 입양아동 중 미혼모아동 수’ 2009

④ 미혼모 양육 아동 -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정치

⑤ 미확인 아동 = ① - (② + ③)

주: 1984년 양육미혼모 비율 5.8%(한국여성개발원 서베이분석결과), 1998년~ 2001년 양육미혼모 비율 각 7.2%, 8.3%, 8.6%, 11%(2002 강영실) 2005년 양육미혼모 비율 31.7%(2005년 허남순 외)를 통해 추정한 연도별 비율을 통계청 ‘혼인외의 자’ 통계에 대입하여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 추정치 산정.

향후 미혼모 정책은 양육미혼모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표 I-9>에서는 연도별로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의 수를 추정하였다. 추정치는 혼인의 출생자 통계에서 시작된다.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그동안 몇몇 연구를 통해서 축적되었다. 1984년 여성개발원 연구에서는 양육 희망 비율이 5.8%, 1998년 - 2001년도 연구에서는 각 연도별 비율은 7.2%, 8.3%, 8.6%, 11%로, 2005년도 연구에서는 31.7%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비율을 근거로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의 수치를 추정하였다.

〈표 I-9-1〉 2010년 자녀 연령별 양육미혼모 수 추정치

(단위: 명, %)

항목	명수	비율
0세 ~ 2세 이하	3,339	12.8
0세 ~ 3세 이하	6,531	25.1
0세 ~ 5세 이하	12,658	48.6
0세 ~ 7세 이하	17,249	66.3
0세 ~ 13세 이하	22,261	85.5
0세 ~ 15세 이하	23,689	91.0
0세 ~ 18세 이하	26,034	100.0

주: 연구시점에서 통계청의 2009년도 출생아 통계가 완성되지 않아서 2세이하 아동을 가진 양육모의 숫자에는 2009년도 이후 출생아는 고려하지 못했음.

〈표 I-9-2〉 연도별 미확인 아동의 소재 추정

(단위: 명)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㉔ 미확인 아동	6,608	7,577	8,010	8,443	7,958	5,652
법원행정처 국내입양	2,568	3,061	4,227	2,791	2,043	2,010
위탁보호	999	1,212	943	927	505	727
시설보호	3,414	3,122	2,940	2,953	2,819	3,161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㉔ 미확인 아동	3,679	3,869	4,024	4,745	4,319	3,746
법원행정처 국내입양	2,248	2,572	2,713	2,777	2,864	2,423
위탁보호	1,209	2,353	1,249	1,406	3,090	2,177
시설보호	3,917	5,112	4,683	4,453	6,274	4,663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㉔ 미확인 아동	4,044	3,563	3,409	3,728	4,582	5,024
법원행정처 국내입양	2,198	2,562	3,154	3,890	3,853	4,034
위탁보호	2,392	2,212	2,322	3,101	3,378	—
시설보호	4,824	4,782	4,818	4,366	3,245	—

자료: 법원행정처 국내입양 건수 - 사법연감 각년도

위탁보호 및 시설보호 - 보건복지가족부, 입양현황통계, 요보호아동현황보고서 2008

주: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내입양 건수 중 약 2.5%~3.8% 정도는 입양신고하여 법원행정처 국내입양 건수로 추계되나 그 외에는 비밀입양으로 추계되고 있지 않음.

<표 I-9-1>은 2010년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별 양육 미혼모의 수를 추정하였다. 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의 수는 3,339명이고 18세 이하 아동 양육 미혼모는 26,034명으로 추정된다. <표 I-9-2>는 <표 I-9>의 연도별 미혼모 양육아동에 대한 추정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입양아동과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의 행방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추측될 뿐이다. 이들 아동의 수는 1991년 6,608명, 1995년 7,958명, 2000년 4,745명, 2007년 4,582명이다. 이들 아동들은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기록된 국내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하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법원행정처의 국내입양 자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보호와 시설보호 자료에서 해당 아동의 미혼모 자녀 여부와 관련된 기록이 제시된다면 이들 아동의 행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V.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와 관련된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정부자료를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수를 추정하였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이들과 관련된 포괄적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인구센서스 자료는 미혼인 사람의 자녀출산 경험에 대한 자료 수집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 자녀 양육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기 조사에서는 인구센서스 설문지가 수정되어야 한다.

출생통계도 미혼모의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우리나라 출생통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자료 수집 방식의 문제인데, 출생아의 가족이 행정기관에 신고한 출생신고서를 통해 집계된 출생통계는 불완전하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파악하는 국내·국외입양아 거의 대부분은 친생부모에 의해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고되거나 법원의 허가로 일가창립을 하게 된다. 이들의 규모가 통계청이 집계하는 혼인외 출생자와 비교하여 적지 않기에 통계청이 집계하는 혼인외자 비율의 오류는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미혼모의 자녀양육자 비율을 적용하였다. 미혼모 시설과 접촉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의 성향에 대해서 아는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성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정한 자녀를 양육한 미혼모 수는 향후 재가 미혼모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한다. 재가 미혼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미혼모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여타 정부가 관리하는 통계를 통해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미혼모의 분만 건수나 기초생계수급대상자 중 미혼모 가족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과 관련된 통계 구축작업을 꾸준히 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를 지원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어린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정치인과 정책집행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도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 『2008년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

법원행정처(2009). 『사법연감』.

보건복지가족부(2009). “미혼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연 입소자 현황”.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요보호아동현황보고서』.

_____. 『2008년도 국내입양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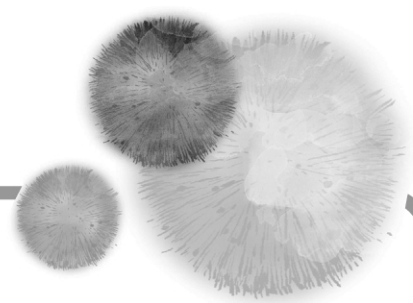
_____. 『2008년도 입양현황통계』.

통계청(2005).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2008). 『2008년 인구동향조사』.

<웹사이트>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자녀를 입양보낸 미혼모의 상실

최승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기

우리나라의 미혼모들은 85-90% 이상이 자녀를 양육하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약 80%가 자녀를 입양 보낸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싱글 맘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 미혼부들의 변심, 가족들의 반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자녀에 대한 강한 모성과는 상반되게 자녀를 입양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혼모들은 혼전 성관계, 혼전 임신 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낙인때문에 자신들의 출산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며, 영원히 비밀에 부쳐지기를 바란다. 출산사실을 알고 있는 미혼모들의 가족이나 친척조차 출산, 자녀입양 등에 대해 서로 언급을 회피하고, 시간이 미혼모들의 가슴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 미혼부는 어떠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미혼모들이 임신과 출산, 입양 혹은 양육의 문제를 가장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대상자가 미혼부이다. 그러나 미혼모는 있지만 미혼부는 없다는 말처럼 미혼부들의 변심과 배신, 연락두절 등의 행태는 미혼모들의 임신기간 내내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가족과 미혼부의 관심과 도움이 배제된 채 홀로 병원에서 생애의 첫아이를 출산하고, 친자 포기각서에 사인을 해야 하며, 자신의 자녀와 이별한다.

과연 시간이 자녀포기, 상실과 관련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외국의 선행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Donnelly와 Voydanoff(1996)는 10대 양육모와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 113명을 2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결과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보다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의 슬픔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입양을 결정하고 아이를 상실한 미혼모들의 슬픔을 다루는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입양과 양육의 득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Faulkner(1991)도 아기를 포기하는 선택에 따르는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 임신 여성들에게 미리 상담함으로써 우울증, 약물중독, 불안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싱글 맘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에 비교해서 자녀를 입양으로 포기한 여성들의 고등학교의 중퇴율이 낮고,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자녀포기 후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슬픔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urnell & Norfleet, 1979; Condon, 1986; Deykin, Campbell, & Patti, 1984; Sorosky et al., 1979). 또한 후회, 절망, 만성적 기분부전장애(dysthymia), 우울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urnell & Norfleet, 1979; Winkler & Van Keppel, 1984; S. D. McLaughlin, 1991).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미혼모들의 슬픔을 방치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미혼모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열

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미혼모들의 80%가 입양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현실에서 기관을 퇴소하는 미혼모들은 해결되지 않는 슬픔으로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될 위험이 높다.

현재 미혼모 기관에서는 다소 차이들이 있지만 다양한 상담과 취업준비 프로그램들이 미혼모들의 심리적 사회적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다. 일부기관에서는 미혼모들의 슬픔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이별식, 상실감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혼모들이 자녀를 어차피 입양 보낼 것이라면 아예 자녀를 보지 않거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처를 더 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미혼모 자신이나 기관, 병원들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자녀와의 상봉이나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혼모 시설의 상담가들은 자녀상실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 개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미국 등지의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은 자녀들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녀의 유품(사진, 머리카락 등)을 간직하라고 권한다(Lee & Nisivoccia, 1989). 또한 아이의 세례식에 미혼모 본인 뿐 아니라 미혼모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아이의 아빠 등이 참석하게 한다. 이는 아이의 존재에 대한 불명확성, 자녀에 대한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것보다 자녀의 실체를 확인하고 기억함으로써 자녀를 포기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Lindsay, 1989; Simone, 1994, 1996).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자녀와의 접촉과 관계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자녀를 실제로 보지도 않은 채,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의 수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외국의 미혼모들의 슬픔과 상실에 대한 기존연구와 발표자의 2003년도, 2007년도의 미혼모 상실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입양을 보낸 미혼모들에 대한 실천적,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외국의 미혼모의 슬픔과 상실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 공개입양 vs 비공개입양에 따른 슬픔

우리나라는 한 해 미혼모 및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결혼사정으로 매년 4-5천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동시설에 수용되거나 국외입양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은 양부모의 대부분이 입양보다는 친자로 입적시키기를 원하고 있어 혈액형 등 선정조건이 까다롭고 입양사실의 노출을 원하지 않아 매년 국내가정 입양은 10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외입양의 중단을 목표로 장애인 입양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지원, 중·고등학교 학비면제 등의 혜택을

주면서 매년 국외입양을 3.5%씩 감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1997).

법률상의 분류는 아니나 입양의 성립요건에 따라 양친이 내국인, 외국인이나에 따라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느냐 입양기관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일방적 의사표시를 입양기관이 중재하느냐에 따라 ‘민간입양(private 혹은 independent adoption)과 기관입양(agency adoption)¹⁾’으로 나누어진다(Roles, 1989). 또한 요보호아동인지에 따라서 ‘요보호아동입양과 정상가정아동입양’, 입양의 성립과 관련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는지에 따라 ‘비밀준수입양과 공개적 입양’, 입양의 목적에 따라서 ‘가계의 계승을 위한 입양과 아동복지를 위한 입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혈통을 기준으로 할 때는 ‘동성동본입양과 이성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김근조, 1988).

외국의 경우 이미 비공개입양 혹은 비밀입양(closed or confidential adoption)보다는 공개입양(open adoption)을 선호하며 공개입양을 권장하고, 이러한 입양의 방법을 선택하는 미혼모 기관과 미혼모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공개입양은 친부모와 양부모간에 정보의 교환과 3자(아동포함)간에 대면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입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서로 확인된 정보를 받음, 둘째, 친모와 양부모와의 만남(미혼모의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입양부모들은 미혼모가 출산하기 전부터, 또한 출산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셋째, 아동을 인계할 때 입양부모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넷째, 입양 후에도 정보(사진, 편지)들을 지속적으로 교환함, 다섯째, 아동과의 접촉이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입양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지만 여전히 어머니로서 모성을 간직하고, 모성을 느끼며, 아이의 발달과 안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표현, 확인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공개입양의 옹호자들은 공개입양의 장점으로 친모에게 자녀의 안녕에 대해서 재확인시켜줄 뿐 아니라 자녀를 포기한 사실에 대한 현실감을 높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별의 과정에 친모가 참여할수록, 포기과 상실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Curtis, 1986; Kaainoa, 1994). 반면에 비공개입양에서는 익명의 의료적 정보만을 교환한다. 비공개입양의 전통적인 목적은 아이로 인해 친모의 삶에 계속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친모로부터 입양부모와 아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공개 입양의 옹호자들은 비공개입양이야말로 친모가 입양의 경험을 벗어나 새로운 생활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입장은 슬픔의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다. 즉 비공개 입양의 옹호자들은 비공개 입양에서는 친모들이 이후의 삶에 적응하는데 슬픔을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나 공개입양 옹호자들은 친모의 슬픔을 피해야 할 악(evil)으로 보았다. 물론 공개 입양자들과 비공개 입양자들의 슬픔의 정도와 과정이 어떠한

1)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서는 기관입양(agency adoption)만을 인정(법제18조)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기관입양과 함께 개인입양알선을 할 수 있다. 개인 입양(private adoption)의 경우에는 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사 또는 변호사에 한해서 알선자격이 주어진다.

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있지 않으므로 극단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Blanton과 Deschner(1990)의 연구에 의하면 18명의 공개입양 선택 친모와 41명의 비공개입양을 선택한 친모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양과 비공개 입양 중 어느 것이 친모와 입양부모, 입양자녀 삼자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건강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공개입양을 선택한 친모와 비공개 입양을 선택한 친모집단과 죽음을 통해 상실을 경험한 애도집단(bereavement group)과 비교를 하였다. 공개, 비공개입양을 선택한 친모들 모두 애도집단보다 비전형적인 반응들, 특히 부인(denial)의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양을 선택한 친모집단과 애도집단을 비교하였을 경우 사회적 고립, 수면장애, 식욕부진, 절망, 의존심, 신체화증상 등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비공개입양을 선택한 친모들과 애도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울음에 대한 통제의 상실,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은 비공개입양을 선택한 친모들의 수치가 적게 나왔으나 수면장애, 식용상실, 원기부족, 절망 등은 더 높게 보고되었다. 공개입양과 비공개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공개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비공개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보다 사회적 고립을 더 경험하고,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겪으며, 절망, 의존심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사례수의 제한과 사례를 제공한 기관의 성격, 친모들의 자조집단, 치료 등의 경험유무에 따라서 개인차가 나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을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두 집단 모두 애도집단보다는 슬픔의 증상이 크다는 공통점에는 일치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공개입양과 비공개 입양의 옹호자들의 입장이 매우 상반되며, 슬픔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도 일관성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따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애도집단과 비교해서 입양집단의 친모들이 슬픔에 대해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비공개 입양으로 제한된 입양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미혼모들의 모성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2) 슬픔과 관련된 사회적·심리적 요인들

슬픔은 상실에 따르는 정상적인 정서 반응이다. 그럼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미혼모의 슬픔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미혼모들은 자녀를 포기한 감정들을 억압하고 부인함으로써 정상적인 슬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혼모에게 자녀는 소중한 혈연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관계와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 후 일반적인 산모들이 경험하는 자녀에 대한 감정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²⁾. 그러므로 자녀를 입

2) Sanders(1999)는 해결되지 못하는 슬픔의 3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1)관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2)상실이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3)비탄자가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양으로 떠나보낼 때, 사별의 상실과는 달리 죄의식, 불안, 두려움, 분노 등을 동반하는 슬픔을 경험한다. 이는 심각한 양가감정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상실한 후에 일어나는 감정인데 미혼모가 자녀를 잊으려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친모로써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유형의 슬픔을 복합적 슬픔(complicated grief)이라고 일컫는다. 복합적 슬픔의 7가지 특성은 ‘비탄의 상실’, ‘지체된 비탄’, ‘감춰진 비탄’, ‘왜곡된 비탄’, ‘갈등적 비탄’, ‘예측치 못한 비탄’, ‘만성적 비탄’이다(Rando, 1993). 즉 슬퍼해야 하는 시기에 슬퍼하지 못하고, 지체되며, 또한 슬픔을 감추거나 왜곡시키고, 상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갈등하며, 슬픔을 예측할 수 없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미혼모들의 경험하는 슬픔의 특성이며 자연스러운 정서처럼 소멸되거나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arkes, 1972; Rahpael, 1983; Lazaurs, 1984; Parkes, 1988).

슬픔을 지연시키고, 해소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을 Lindsay(1989)는 가족, 친구들, 전문가들이 자녀 상실의 아픔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때, 격한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할 때, 자녀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나 자녀를 보지 못해서 아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없을 때, 상실을 회피하기 위해 아이와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고 그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게 될 때, 자신에 대한 비하나 비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양 결정의 압력을 받았을 때, 사회적 지지의 결여, 알코올이나 약물의 중독으로 인한 무감각,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사실을 감추고, 상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등을 들고 있다. Simone(1994, 1996)은 264명의 미혼모들의 슬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수로써 사회가 미혼모들의 상실의 아픔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가족,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각, 상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기회의 상실, 존재하는 아이로 인한 상실의 불명확성, 자녀포기 결정에 대한 죄의식과 수치심, 가족, 친구, 전문가들이 입양하도록 설득했다는 인식, 아이를 찾는 행동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조사시점이 입양을 보내고 난 후 몇 년 혹은 십여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슬픔으로 고통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설득이나 회유로 입양을 선택했다고 인식할수록 해결되지 않는 슬픔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자녀 포기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타인의 강요로 입양결정을 하며, 입양동의를 한 후에 결정을 바꿀 것을 고려했을수록 높은 수준의 슬픔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미혼모가 가정을 가지고, 대학 혹은 전문학교를 졸업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슬픔의 정도가 낮았다. 입양으로 자녀를 포기한 미혼모에 대한 추적연구들의 결과(Winkler & Keppel, 1984; Mc Goldberg, 1972; McLaughlin, 1991)들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통제집단 보다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손상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고, 사회적 지지 자원의 활용에 대한 인지, 감정 표현의 기회, 상실의 감정 정도, 생애 스트레스 사건 등이 친모들의 적응과 관련 있으며, 이는 포기 직후에서 1년

여 동안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atson(1986)의 연구에서는 자녀포기의 결정은 이후의 미혼모 개인의 인지적 발달, 이별과 상실에의 적응, 가족관계,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중요한 자녀포기, 입양의 결정을 자신이 아닌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주변의 의견에 따른 경우에 느낌과 감정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인지·정서적으로 성숙해지고, 방어기제가 느슨해지게 되면 과도한 상실감과 죄의식으로 심하게 고통하게 된다고 한다.

국내연구로는 입양에 대한 견해와 입양결정에 대한 만족, 입양정보제공의 충분성 등이 슬픔과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임신의 경위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모르는 이성이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보다 사귀던 이성친구와의 임신인 경우에 상실의 슬픔이 더 컸다(최승희, 2003). 여성가족부(2005) 실태조사에서도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46.1%)과 미련(34.6%)이 남아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볼 때 미혼모들의 입양으로 인한 자녀상실의 영향력은 부정적이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 감정표현의 기회, 강렬한 상실감, 스트레스 사건 등이 미혼모의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입양을 보낸 국내 미혼모들의 상실과 슬픔

입양을 보낸 국내 미혼모들의 슬픔과 상실에 대한 본문의 내용은 발표자의 2003년도와 2007년도의 논문의 결과를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2007년도의 연구는 외적 통제소,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족/ 미혼부/친구), 입양결정과정(가족/미혼부/친구의 입양결정압력, 입양결정번복, 입양결정후회,)의 슬픔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과 대처행동에 따른 슬픔의 정도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미혼모의 슬픔에 관한 연구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미혼모들의 특성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외적 통제소,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입양결정과정에 초점을 둬으로써 구체적인 개입실천의 지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외적 통제소에 초점을 둔 이유는 대처능력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입양의 결정과정에서 경제적 문제, 가족의 반대, 미혼부의 변심 등의 환경의 변화와 요구가 많은데 외적통제소가 낮을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여, 무력하게 처한 조건이나 타의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적통제소가 강한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해결의 능력을 신뢰하고,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Deykin et al. 1984; Brodzinsky, 1992; Bracken et al, 1978). 자녀의 장래에 대한

의사결정의 여부는 단순히 외부의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 통제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외적통제소가 슬픔에 미치는 영향력이 고려된다면 입양의 결정이 주체적인 결정이 되기 위한 내적 통제소를 강화하는 개입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보고자 하는 목적은 기존의 사회적 지지와 미혼모와 관련한 국내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입양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김만지, 2000; 김지혜, 2002; 김은희, 1994; 안재진, 김지혜, 1996)를 제시하였지만 슬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들은 미흡한 편이기 때문이다. 시설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외되고, 소외되기 쉬운 미혼모들에게 사회적 지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자녀상실 슬픔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가족, 미혼부, 지역사회 등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들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미혼모들에게 대부분 낮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설에서 종종 수행되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이 슬픔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가 좀 더 명확해진다면 미혼모들의 자존감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양결정압력, 입양결정번복, 입양결정을 후회하는지와 같은 입양결정과정의 영향력을 봄으로써 시설입소 초기부터 입양결정과 관련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유의할 점이나 지원할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녀의 장래에 대한 결정은 대체적으로 미혼모 본인이나 가족, 아이의 아빠와 그들의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자녀의 출산사실을 알린 이후부터 출산, 입양결정의 과정까지 미혼모들은 많은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며, 자신과 자녀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기보다, 주변의 압력에 의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바꾸거나, 입양결정을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입양결정의 압력이 있을수록, 입양결정의 번복이 있는 경우, 입양결정에 대한 후회 가 클 수록 미혼모들의 이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imone, 1994; Watson, 1986; Donnelly & Voydanoff, 1996). 그러므로 입양결정과정에서 슬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미혼모가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인 제도가 충분치 않은 국내 현실에서, 미혼모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세밀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데에 지침이 될 것이다.

1) 외적통제소,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입양결정의 슬픔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³⁾

슬픔의 3가지 하위영역인 슬픔, 대처의 어려움, 좌절로 세분화하여 영향력을 살펴보면 슬픔에는 입양결정번복이 있을수록, 입양결정을 후회할수록, 미혼부의 지지가 높을수록, 외적

3) 최승희(2008) 입양으로 자녀를 상실한 미혼모들의 슬픔 연구- 외적통제소,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입양결정과정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6호, pp203-225.

통제소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슬픔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양결정의 번복과 현재의 입양결정의 후회가 매우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혼모의 초기 입양과 양육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미혼부의 지지가 높을수록 슬픔이 큰 것은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외국연구들이 입양을 보낸 후 상당기간이 흐른 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입양을 보낸 초기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미혼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미혼부와 긍정적인 관계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애착과 슬픔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대처의 어려움은 외적통제소가 높을수록, 입양결정 번복이 있을수록, 미혼부의 지지가 높을수록, 미혼부의 입양 압력이 높을수록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적통제소가 높은 미혼모들은 상황에 무력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처음부터 입양을 결정하지 않았던 미혼모들이 양육을 기대하였다가 결국 자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부의 지지가 높고, 미혼부의 입양 압력이 높을수록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부가 지지적 관계이든지, 입양 압력을 행사하던지 미혼모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입양결정에 대한 외부 압력은 슬픔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보면 가족들의 반대가 입양을 결정하는 이유로 높게 나타났고, 미혼부의 변심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많지 않아도 미혼부의 변심이나 입양결정에 대한 압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지혜, 안재진(2006)의 연구에서도 양육미혼모들의 의사결정에 미혼부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양육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입양결정과정과 출산 후 미혼모의 슬픔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이 가족보다 오히려 미혼부임을 알 수 있다.

좌절은 외적통제소가 높을수록, 입양결정 번복이 있을수록, 입양결정을 후회할수록,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높았다. 친구의 지지는 슬픔과 대처의 어려움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좌절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외적통제소, 자존감, 사회적 지지가 슬픔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하위 범주	독립변인범주	B	Beta	t	R ²	수정된R ²	F
슬픔	슬픔	입양결정번복	0.586	0.315	4.133***	0.367	0.362	14.236***
		입양결정 후회	0.181	0.265	3.735***			
		미혼부 지지	0.090	0.164	2.347**			
		외적통제소	0.299	0.200	2.830**			
		자존감	-0.250	-0.157	-2.194**			
	대처 어려움	외적통제소	0.507	0.475	8.825***	0.601	0.590	55.758***
		입양결정번복	0.544	0.410	7.444***			
		미혼부 지지	0.075	0.191	3.408**			
		미혼부입양압력	0.226	0.154	2.778**			
	좌절	외적 통제소	0.634	0.543	9.987***	0.602	0.589	44.513***
		입양결정번복	0.530	0.365	6.297***			
		입양결정 후회	0.111	0.209	3.654***			
		친구 지지	-0.047	-0.156	-2.840**			
		자존감	-0.140	-0.113	-2.065*			
	전체	R ² = 0.336 수정된 R ² = 0.314 F = 15.486***						

p<0.01, *p<0.001

슬픔의 하위영역별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외적통제소와 입양결정의 번복이 해당되었다. 특히 외적통제소는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결정과 환경에 대한 통제보다는 외적인 환경에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슬픔의 하위 3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미혼모의 내적통제소를 강화하고, 좀 더 치밀하게 계획된 입양결정과정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입양결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며 충분히 검토해서 입양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막상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입양결정에 대한 회의와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면밀한 정보탐색과 입양절차와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자신의 양육과 입양에 따른 현실적인 판단 등은 입양 결정에 대한 후회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입양 결정에 대한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양과 양육의 결정을 미혼모 개인이나 가족의 선택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정보제공, 심리적 지지, 대안의 탐색 등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최대한의 후회없는 자기결정이 될 수 있는 원조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특히 입소초기와는 달리 상황에 의해 입양결정을 번복한 경우의 미혼모들이 더욱 취약한 상태일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감정들을 충분히 다루어주고, 최선의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개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이한 것은 지지의 출처 중 가족의 지지는 하위범주 어느 것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임신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거나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와 관련한 감정들과 어려움들을 가족들에게 토로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교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시점이 출산 및 입양 직후, 퇴소 직전이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이유일 것이다.

2) 출산 후 자녀관계 및 슬픔대처행동에 따른 집단 비교

출산 후 미혼모들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다. 극심한 산고를 겪고, 자녀와 첫 조우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많은 미혼모들이 자녀의 입양결정에 대한 갈등과 후회를 경험한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녀를 입양기관으로 보내기 전까지 짧지만 자녀와 애절한 정을 쌓고, 자녀와 이별을 하며, 또한 장래에 자녀와의 만남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는다. 출산 후 퇴소까지의 길지 않은 시간동안 미혼모들은 강한 모성과 자녀를 잃은 슬픔, 신체적 고통, 자녀의 안위에 대한 염려와 불안, 죄책감 등의 복잡하면서도 매우 강렬한 감정들을 경험한다. 출산 이후에 자녀관계, 슬픔대처행동에 따라서 슬픔의 정도가 달라진다. <표 4>는 이와 관련한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2〉 출산 후 자녀관계 및 슬픔대처행동에 따른 집단 비교

내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자녀관계	자녀와 본인상봉	안했음	3.240	0.790	0.156	0.877
		했음	3.218	0.689		
	자녀와 미혼부상봉	안했음	3.191	0.741	-1.011	0.313
		했음	3.394	0.709		
	자녀와 가족상봉	안했음	3.196	0.757	-1.221	0.224
		했음	3.387	0.653		
	수유	안했음	3.213	0.706	2.380	0.019
		했음	3.924	0.846		
슬픔대처행동	자녀와의 만남기대	적음	3.145	0.729	-4.678	0.000
		많음	4.030	0.189		
	이별식	없음	3.383	0.721	4.401	0.000
		있음	2.838	0.652		
	타인에게 슬픔 표현기회	없음	3.510	0.730	5.259	0.000
		있음	2.897	0.607		
	혼자 슬픔 표현기회	없음	3.413	0.750	3.873	0.000
		있음	2.968	0.663		

우선 출산 후 미혼모, 미혼부, 그리고 가족들이 미혼모의 자녀와의 상봉을 했는지의 여부에 따른 슬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녀를 직접 보게 되면, 자녀의 이미지를 실제로 갖게 되고, 이는 상실감을 오히려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미혼모 본인의 생각과 때로는 자녀를 볼 권리를 임의로 침해하는 병원 직원들의 비윤리적인 행동들로 인해 자녀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녀를 입양보내기 전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함께 모여, 아기와 만남을 갖고, 축복하며, 세례식과 같은 의식을 하기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출산을 알게 된 경우조차 직접 산간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다. 미혼모 본인은 자신의 자녀를 보았어도 주위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자녀를 보지 못했다면 자녀의 실체와 자녀에 대한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타인이 없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자녀의 실체를 보고, 이미지를 갖는 것이 이후의 삶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Nisivoccia, 1989; Lindsay, 1989; Lindsay & Monserrat 198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본인과 미혼부, 가족 모두 자녀를 상봉한 집단과 상봉하지 않은 집단의 슬픔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혼모 중에 출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가족이나 미혼부가 드물기 때문에 아예, 미혼부나 가족들과의 상봉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어서 이에 대한 슬픔의 정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유의 여부에 따른 집단비교에서는 수유를 한 집단의 슬픔이 평균 3.924로써, 안한 경우의 3.2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상봉여부는 슬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수유는 아기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더 큰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상봉이나 수유는 자녀의 실체를 확인하고, 자녀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미혼모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퇴소시점에서의 결과만을 제시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자녀와의 만남과 관련해서 만남에 대한 기대가 적은 집단과 많은 집단을 비교하면, 장래 자녀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집단이 평균 4.03, 낮은 집단은 3.145로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언젠가 자녀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에 슬픔의 정도가 높았다. 미혼모들이 언젠가 자신의 자녀와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누구나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자녀에 대한 애착과 상실의 아픔이 깊을수록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의 삶의 적응에서 현실의 수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데에 있다. 지나치게 자녀와의 만남에 집착하고, 만남의 기대에 사로잡히게 되면, 현재의 상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슬픔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

용한다. 그러므로 자녀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용과 더불어서 이후의 퇴소 후 생활 속에서 막연한 바람이 지나친 환상과 기대감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현실을 수용하도록 하는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별식을 한 집단(평균 2.838), 이별식을 하지 않은 집단(평균 3.383($p<0.00$))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이별식의 수행이 미혼모의 슬픔을 완화해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별식 유무에 따라 슬픔의 차이가 없었던 기존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최승희, 2003). 이는 이별식의 내용과 형식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미혼모 기관마다 다르게 수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될 필요성이 있겠다.

미혼모에게 슬픔의 표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긍정적, 부정적 감정표현을 억제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 심각한 정서적 손상과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될 수 있다. 미혼모 보호시설에서는 외부사회와 기존의 관계들과 단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정의 표현은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타인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가 있는 경우와 혼자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각각 평균 2.897, 2.968)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각각의 평균 3.510, 3.413) 슬픔이 낮았다. 기존의 연구결과도 다른 사람들이 미혼모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슬픔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Simone, 1994; 1996; Winkler & Keppel, 1984;). 본 연구의 결과도 미혼모들이 시설을 퇴소하기 전에 동병상련의 미혼모 집단과 함께 나누고,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슬픔을 완화하고, 이후의 적응을 원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전문적 개입에 대한 미혼모들의 인식⁴⁾

개인적, 전문적 개입, 사회적 관계와 슬픔과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미혼모의 연령은 상실기관과 정적인 관계, 시설 친구 수의 상관관계 계수는 $p<0.05$ 수준에서 부적인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출산 후 기관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며, 상대적으로 시설 내에서 동료들 사귀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모의 입양에 대한 견해는 입양결정에 대한 만족, 입양정보제공과는 정적인 관계, 슬픔과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즉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일수록 입양결정에 대해서 만족하며,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일수록 슬픔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최승희(2003), 청소년 미혼모들의 슬픔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권 4호, pp.1-20

입양에 대한 정보제공은 유의수준 $p<0.01$ 에서 입양견해와 입양결정 만족과 모두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즉 입양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히 제공될수록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며, 입양결정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상담의 만족은 $p<0.05$ 수준에서 입양정보제공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위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입양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입양견해와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슬픔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슬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의수준 $p<0.01$ 에서 입양견해, 입양결정만족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유의수준 $p<0.05$ 에서 입양정보제공이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즉 입양견해가 부정적일수록, 입양결정에 대해서 불만족할수록, 입양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미혼모가 경험하는 슬픔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입양견해는 -.524로서 높은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입양견해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는 입양결정에 대한 만족, 입양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모두 높은 부적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서 볼 때 미혼모의 슬픔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입양견해이며, 이는 미혼모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입양상담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상담관계의 만족 등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미혼모의 슬픔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입양기관에서의 철저한 상담과 충분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슬픔과 입양상담만족, 미혼부관계, 가족방문수, 시설친구 수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표 3〉 개인적, 전문적, 사회적 관계와 슬픔과의 상관관계 분석

	연령	상실 기간	입양 견해	입양 결정 만족	입양 정보 제공	입양 상담 만족	미혼부 관계	가족 방문수	시설 친구 수	슬픔
연령	1.000									
상실기간	.335*	1.000								
입양견해	-.090	.147	1.000							
입양결정만족	-.109	.001	.479**	1.000						
입양정보제공	-.018	.034	.439**	.370**	1.000					
입양상담만족	-.151	.158	.083	.194	.520**	1.000				
미혼부관계	-.014	.074	.314	.321	-.033	-.266	1.000			
가족방문수	-.128	.061	-.139	.014	-.324*	-.276	.531	1.000		
시설친구수	-.281*	-.052	.094	.113	.135	.309*	-.134	-.093	1.000	
슬픔	.032	-.185	-.524**	-.441**	-.270*	-.122	-.191	-.120	-.115	1.000

** 0.01수준 *0.05수준

〈표 4〉 미혼모들에 대한 전문적 개입

전문적 개입의 내용	내용	빈도(평균)
입양상담에 대한 만족도	만족스럽다.	27(37)
	보통이다.	37(50.7)
	불만족스럽다	4(5.5)
	상담이 없었다.	5(6.8)
입양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분히 받았는가	매우 그렇다	7(9.6)
	그렇다	44(60.3)
	그렇지 않다.	19(26)
	매우 그렇지 않다	2(2.7)
이별의식의 수행여부	예	37(50.7)
	아니오	36(49.3)

전문적 개입의 내용으로 상담에 대한 만족도, 정보제공의 정도, 이별의식의 수행여부를 알아보았다(<표 4> 참조). 입양을 결정하거나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미혼모들에게 입양 상담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상담에 대한 만족도에 관해서도 만족스럽다가 27명(37%), 보통이다 37명(50.7%)이며, 반면에 불만족스럽다 4명(5.5%),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5명(6.8%)으로 전체 12.3%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 입양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양상담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거나 상담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상담은 입양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왜곡된 미혼모들에게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제공하고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에게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지지해주고,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을 원조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미혼모의 알권리와 모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절차 과정에 대한 법적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상담을 통해 정보제공을 충분히 받은 경우는 전체 51명(69.9%)으로 미혼모들의 입양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약 30%나 차지하기 때문에 입양상담의 실시여부 뿐만 아니라 입양상담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자녀와의 이별의식을 가진 미혼모는 37명(50.7%), 그렇지 않은 경우는 36명(49.3%)으로 나타났다. 기관마다 이별의식에 대한 형식과 내용은 다르다. 대부분 입양기관에서 자녀를 데려가기 전에 병원에서 혹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녀와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혼모들이 마지막으로 자녀와 이별을 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주고, 혹은 형식을 갖추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실에 대한 현

실적인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별의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정보제공과 상담에 비해 매우 취약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는 보호시설에서 이별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별과정이 오히려 미혼모들의 슬픔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별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선택은 미혼모의 몫이고, 자녀를 떠나 보내면서 자녀와의 개인적 이별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의 설문지의 내용에는 이별의식 수행여부를 묻는 문항 옆에 입양기관에서 자녀를 보여주지도 않고 데려갔다고 쓴 미혼모들도 있었다. 이는 자녀를 보지 못한 슬픔과 입양기관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불만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볼 때 대다수의 기관들이 입양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더 강화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서비스들이 대부분 미혼모의 출산 전과 입양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자녀를 상실하고 겪는 심리 정서적 문제의 심각성을 좀더 인지하고 출산 후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실천 및 정책 지원방안

미혼모들의 슬픔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 않은 가운데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 보호시설의 퇴소 후 미혼모들의 슬픔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복지계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이다. 이제껏 미혼모들에 대한 관심과 개입지점이 출산 전 미혼모였다면, 출산 후 급격한 감정의 변화와 위기를 겪고, 무방비상태로 퇴소하게 되는 미혼모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슬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자녀를 상실한 미혼모들에 대한 실천적 개입의 지점과 내용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미혼모들의 슬픔에 대한 개입은 출산 및 입양 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시설에 들어온 시점부터 필요하다. 입양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최소화되도록 입양결정초기부터 면밀한 준비 뿐 아니라 입양결정을 번복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감정들을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부와 의 관계와 입양결정에 대한 압력 등에 대한 미혼모의 대처능력의 강화,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적극적인 제공, 자녀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환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실의 수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미혼모 개입 내용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앞으로 미혼모들에 대한 실천적 개입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입양을 보낸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입양결정에 대한 미혼부의 압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탐색하고, 미혼부의 낙태 권유나 무관심 등의 직·간접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산까지 자녀를 지킨 모성의 힘에 대한 지지, 인정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들의 슬픔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변화는 미혼모들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타인에게 슬픔을 표현하거나 혹은 혼자 슬픔을 표현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슬픔이 낮은 것은 퇴소 전 미혼모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족, 친구, 미혼부에게 자녀상실의 슬픔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미혼모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고, 입양을 보낸 동병상련의 친모들끼리 훨씬 더 자유롭고, 심층적인 슬픔의 감정 토로와 자신의 감정에 대한 탐색 등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들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이 퇴소 전 일정기간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시설의 전문가들도 출산 후 퇴소를 서두르는 미혼모들에게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참여를 적극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미혼모들에게 입양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 상담도 미혼모들의 입양결정을 확인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혼모시설이나 입양기관마다 담당자의 수준과 자질에 따라서 입양상담과 정보제공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입양상담 교육 등의 매뉴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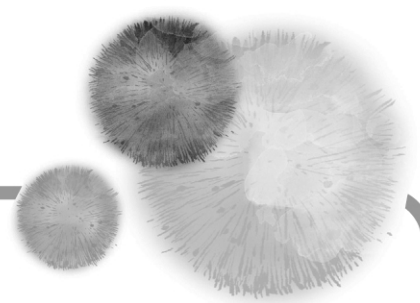
넷째, 미혼모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을 퇴소한 이후에 미혼모들은 지속되는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 죄의식을 경험한다. 또한 출산 이후 얼마되지 않아, 가정, 학교, 직장 등으로 복귀해야하기 때문에 출산 산후 건강관리가 매우 취약하다. 문제는 이들이 퇴소 후, 대부분 연락을 두절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자녀상실의 슬픔과 내면의 문제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전화상담이나 사이버 상담 등으로 개입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원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입양을 보낸 미혼모들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태도, 출산이후의 병실환경, 미혼모시설 및 입양기관 직원들의 태도, 임신사실로 인한 학교에서의 부당한 징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일정부분을 포기한 용기있는 엄마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을 해야 한다.

여섯째, 미혼모 시설 입소기간 동안 심각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는 미혼모들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전문적 개입에는 시설차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례관리를 통해 미혼모들의 심리, 신체적 건강상태, 입양과 양육결정에 따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미혼모 시설 및 입양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생활시설에서는 이용시설과 달리 미혼모들과 전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러므로 상담 등을 맡은 실무자들이 소진되거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을 퇴소한 미혼모들에 대한 연구결과물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퇴소 이후의 삶 속에서 적응과 부적응의 요인들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사회복지적인 개입의 내용이 서구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입양을 보낸 친모의 적응과 부적응의 요인들이 그들과 유사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홀로 슬픔을 견디고, 생활해 나가야 하는 친모들의 적응과 부적응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물들이 축적되어, 장기적인 적응을 원조할 수 있는 개입과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정책팀장)

I. 미혼모들의 경험 발표 배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혼모들의 당사자모임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서 대외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최형숙입니다. 저는 6세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가족을 피해 임신 8개월에 미혼모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먼저 오빠에게 연락을 했을 때, 오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오빠에게 아기를 키우겠다는 뜻을 전하자 오빠는 부모님이 충격 받을 것을 걱정하며 크게 반대하며 입양을 권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준비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기를 직접 키우려는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만삭의 몸으로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앞두고 시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입양기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미혼모들이 출산에 임박하여 입양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던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발표하는 내용은 저 자신의 이야기와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입양상담을 받았던 4명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미혼의 어머니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자기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육과 입양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은 이런 어머니들을 상대로 서둘러서 입양을 보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입양기관의 상담 서비스에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례 수집 과정

입양기관의 상담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입양 보내려 했다가 되찾아온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사례 당사자인 5명 중 3명의 어머니들은 2010년 1월 31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회의실에서 만나 본인들의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녹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나머지 2명의 어머니의 경우는 전화통화로 사례수집의 취지를 설명하여 메일로 첫 원고를 받았고 이후 두 차례 수정하여 보낸 것을 받아 정리하였습니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입양 보내려 했다 되찾아 온 어머니들

	현재거주지	입양상담 시점	출산전후 거주지	출산연월
사례 1	서울시	임신8개월	시설	2005.08
사례 2	고양시	임신8개월	시설	2005.10
사례 3	인천시	임신9개월	시설	2008.05
사례 4	서울시	임신8개월	시설	2009.02
사례 5	서울시	출산후 4개월	집	2008.07

II. 사례소개

1. 두 번 태어난 나의 아기

먼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출산을 준비하다가 병원에서 2005년 8월 12일 새벽 2시 47분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출산 전 임신 6개월까지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배가 불러오면서 다른 동료들의 시선과 주변지인들의 걱정으로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족과 주변의 시선, 출산할 때의 두려움,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저는 2005년 6월12일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6년 넘게 사귀었던 아이아빠와 헤어진 한 달 후 임신 3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혼모로서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부담과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 또 가족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입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세 곳의 입양 기관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제 생각은 아이를 입양 보내더라도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양부모와 사진도 교환하고 전화연락도 하고, 만나고도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의사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입양기관을 찾으려 했습니다. 처음 입양기관은 공개입양과 비공개 입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내입양은 거의 대부분 비공개 입양이고 해외입양은 공개입양이라고 하시며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국내입양의 장점은 아이가 양부모를 친부모인 줄 안다는 것이고 단점은 나중에 아기가 엄마를 찾을 것이고 엄마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 엄마의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입양의 단점은 인종이 다른 사회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장점은 입양아에 대한 편견이 없는 곳에서 자라고 아이와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개입양을 했을 경우 아이의 성장과정을 양부모가 보내주는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상담한 두 기관에서는 공개입양을 하면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 만날 수 있다고 말했고 세 번째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친엄마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정을 찾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세 기관 중 입양간 아이에 대해 계속 연락하고 싶어 하는 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곳으로 생각된 마지막 기관을 통해 입양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입양 상담을 할 때 세 기관 모두 제가 기거하고 있는 미혼모보호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두 개 기관은 1회 방문상담을 하였고 제가 나중에 선택한 기관은 두 번 방문하였습니다. 첫 회의 상담시간은 30여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들 세 기관 모두 첫 방문 때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를 들고 와서 첫 상담에서 바로 이들 양식을 작성하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워하며 첫 두 기관에서 제시한 두 가지 양식을 작성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세번째 기관의 경우는 첫 상담에서 복지사가 가져온 양식에, 서명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작성하였고 사회복지사는 그 양식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가 출산 1달 전이었습니다. 입양동의서에는 저와 아이아빠의 취미, 특기, 학력, 가족관계, 혈액형, 좋아하는 꽃과 색깔, 체중, 키 등 신체정보, 좋아하는 음식 등 상세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 양식을 수거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저와 아기의 아빠의 조건이 좋다고 하며, 빨리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입양 기관 사회복지사는 이후 5분 정도 제가 기거하는 미혼모 시설에 들렀을 때 5분 정도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상담의 전부입니다.

저는 만삭인 상태에서 입양상담을 받은 것인데 입양 상담 시 제가 입양결정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서를 저에게 들이 밀면서 작성하라고 권했습니다. 입양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우선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서를 작성을 하면 입양 결정 후에 사인을 하면 된다고 하며 권했습니다.

저는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2005년 8월 12일 새벽 3시경 미혼모보호시설 인근에 있는 000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들어가기 전 오빠에게 연락을 하였고 아침에 오빠가 병원에 왔는데 제가 아기 키우는 것을 반대하였기에 저는 입양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출산한 당일 아침 입양기관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날 제 담당 복지사는 바빠서 다른 사회복지사를 보냈는데 오전 11시경 제가 상담 때 작성하였던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를 가져와 제가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아이 아빠랑 친권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아이 엄마인 제가가 진다는 내용을 불러 주었고 저는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서약서에 빨간 인주로 제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신생아실 복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자마자 잠깐 아이와 눈을 맞추고 사회복지사에게 아이를 보낼 때 신생아실 복도 앞에서 아이를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강보를 가져와 아이를 데려갔고 저는 바로 퇴원하고 기거하던 미혼모보호시설로 돌아왔습니다.

니다. 새벽에 아이를 낳고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에게 아기를 보내고 퇴원하고 미혼모보호시설로 돌아온 때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혼모보호시설에 돌아오니 아무 감각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이 지나자 뱃속의 아이만 쪽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새벽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한숨도 못자고 괴로움에 뒤척이며 밤새 고민하였습니다. 난지도나 쓰레기통에 아기를 버리고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미혼모보호시설 선생님에게 아기를 데려오고 싶다고 상담하고 입양기관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회복지사는 입양의사를 번복하며 어찌하느냐 서류 절차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데리러 간다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아이가 입양을 간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에서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휴가 중이데 휴가에서 8월 17일 돌아오면 찾으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아기를 낳고 찾아오겠다고 결심한 날부터 아기를 찾으러 가는 8월 17일까지 4일 동안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되었고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5일 만이었습니다. 보내기 전까지 두 번 눈을 맞추었을 뿐입니다. 아기가 보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17일 아침 전화를 하여 입양기관에 위치를 물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뒤져서 찾아오세요”라며 무성의하게 답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전에 입양기관에 도착하니 아이는 입양기관의 일시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황량한 느낌이 드는 커다란 방에 저희 아이가 혼자 덩그마니 누워 있는 것이 보여 바로 데려왔습니다. 그런 아기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미어졌고, 그때 아기의 가여운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2005년 8월 17일 아기를 데려오며 “너는 오늘 다시 태어난거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앞날은 캄캄하고 앞으로 겪을 일이 많은 것이 걱정이었지만 넘쳐나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 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백일까지는 엄마와 아기는 한 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잠시 저의 한 몸을 떼어냈던 것입니다. 아이를 떼어낸 5일간의 잘못을 용서받고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달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봉인해두고 있습니다. 최근 58번째 편지를 마쳤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 보내야 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에 직면한 나약한 미혼모와 아기에게 제공되었던 입양기관의 이러한 서비스는 참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출산에 임박한 저에게 입양기관은 빨리 아기를 포기할 것을 권유하였고,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의 아픈 마음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이들의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이미 만들어진 모성과 나의 아이

저는 현재 27세로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며 6세의 아들을 키우고 있고 회사에서 직원 교육을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 10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임신 8개월일 때 2005년 8월 1일 서울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난 뒤 아이아빠를 피해 입소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반대하였고 저는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였습니다.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입양기관 사회복지사가 미혼모보호시설로 찾아왔습니다. 첫 상담이었는데, 입양동의서 친권포기각서 들고 와서 작성해달라고 하여 해주었습니다.

입양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아이 부모의 취향 등 상세한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저와 아기 아빠의 혈액형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며 국내에서 입양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에게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저는 아기를 입양 보낸 후에도 아이와 연락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해외입양을 원한다고 사회복지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회복지사는 국내 입양을 시키라고 권하며 약사 직업의 좋은 양부모가 입양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혈액형까지 일치하는 그 가족이 딱 맞는 것 같다고 하며 끝까지 그 가족에게 보내라고 설득했습니다.

담당 복지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해외입양을 원하자 담당 복지사는 해외입양의 나쁜 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을 경우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첫 상담에서부터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양부모에게 아이를 보내기로 작심하고 설득하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2회에 걸쳐 추가상담을 받았는데, 상담내용은 제 마음을 국내 입양으로 돌리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 인근 병원에서 2005년 10월2일 오후 4시 22분에 남자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 다음날 오전 입양기관에 연락을 하였고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는 오전 10시-11시경 병원에 와서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에 서명을 받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외에도 친권과 관련하여 아이 아빠가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빠가 친권문제로 소송 등을 하면 입양 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아기를 보내고 나기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들며 허전하였습니다.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아기를 되찾겠다고 결심하고 아기를 보낸 3일 후인 2005년 10월 6일 입양기관에 아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이때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아이를 사생아로 키울 것이냐?”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사회복지사는 서류정리가 덜 되었다며 위탁비용을 정산하라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3일 동안

위탁비용이라며 일일 2만원씩 총 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저는 이를 지급하고 나서야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혼모의 양육에 대한 배려나 진지한 입양상담보다는 입양 기관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현재 저는 아이아빠와 결혼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3.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버틴 10개월

지방에서 자라고 철부지였던 저는 한 가정의 장녀로 자라 대학이라는 곳을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수도권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가 처음으로 혼자서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저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첫 직장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많이 의지하며 기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5일이 지나서야 임신 6개월이라는 가슴 떨리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찾아갔지만 그로부터는 끔찍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비난과 이미 헤어진 것이니 혼자서 알아서 해라, 병원을 알아보라는 이야기들 뿐 그 이상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자 어렵게 병원을 찾아 수술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 병원에서는 아이가 많이 자랐다면 키우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차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녀인 제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고, 동생들 보기 부끄러웠습니다. 우선은 이 사실을 숨기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침저녁으로 아르바이트로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워질수록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 하는 것이 무리가 되었고, 행여 나온 배를 의심 받을까봐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온 종일 서서 일 해야 하는 것이 뼈저리게 눈물나고 힘들었습니다.

2008년 2월 예정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부터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디서 지내야 하는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사람이 누울 만한 좁은 공간의 고시텔에서 지냈기 때문에 집도 없었고, 아르바이트로는 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자 저는 입양이라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가까운 곳에서 지내면서 아이아빠가 마음을 돌리기를 애원하며 기다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저는 입양이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2월경 만삭이 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 입양기관을 알게 되어 상담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너무나 상냥한 복지사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이 되

었습니다. 제가 입양을 생각중이라고 하자 상대방에서는 입양상담을 친절히 해주면서 직접 방문해볼 것을 권하면서, 방문할 때는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전화 상담을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2008년 3월 3일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30분가량의 입양상담이 끝나자 사회복지사는 친권포기각서와 입양동의서를 내밀며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인지라 작성을 거부하자 그럼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며, 시설에 입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삭인 저는 불안한 상태라 그런지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거부하자 또 다시 저를 안심시키며 시설에 있는 엄마들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진통이 오면 혼자서 힘들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만 촉진제를 맞고 예정일보다 먼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산부인과를 소개해 주면서 모든 진료, 출산, 입원비용을 입양기관에서 내주겠다고 제안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이후 고립되어 지내다라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처음 만났기에 위로는 되었지만,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돌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3월 19일 저는 입양기관이 제안한 대로 예정일보다 앞 당겨 분만하기로 마음먹고 병원을 향해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기 직전 입양기관에 들렀는데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를 앞에 놓고 서명하기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담당 복지사는 [아이를 보내기로 한] 마음이 바뀌면 얘기하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서류를 쓰고 나서 병원으로 가 분만촉진제를 맞고 그날 오후 늦게 여자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다음날 복지사는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때 출산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아이아빠를 보자 복지사는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권했습니다. 복지사는 아이아빠에게 “아이 엄마가 입양을 원하니 사인만 하면 된다”며 서류를 건넸고 아이아빠는 제대로 서류내용을 읽어볼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복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아이아빠는 복지사로부터 입양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도 받지 못한 채 서류에 사인하게 되었고 서류와 함께 아이는 그렇게 제 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4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저는 도저히 제 아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직후 입양기관을 찾아가 입양결정을 취소하고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사는 이미 서류작성이 끝난 일이므로 안된다고 거절하고 당시 임시보호소에 있던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출산 직후 몸이 회복되지 않아 허리와 온 몸이 아팠습니다. 백지장같이 창백한 얼굴로 거의 매일 입양기관을 찾아가 애원하여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2008년 4월 16일 양부모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저와 아이 아빠는 다음날 함께 입양기관을 찾아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거듭 요청하였고 복지사는 저희와 양부모의 경제력과 양육여건을 비교하면서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는 게 낫겠느냐며 입양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양을 계속 미루면 출산 후 5~6개월이 지나서 아이에게 고아호적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입양을 가든 안가든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아이를 데려가서 호적에 등록시킬 때는 평생 사생아 호적밖에는 되지 않는다는면서 서둘러 결정을 내리라 종용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입양을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 아이를 입양하려던 양부모는 다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복지사의 태도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2008년 5월 1일 저는 울고 불며 복지사에게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위탁모에게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돈을 모아서 데리러 오는 방법은 안 되겠냐고 물어보니 복지사는 위탁모는 입양할 아이만 봐주기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알아보니, 어떤 한 시설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고 하여 그 기관에 아이를 맡겨 놓고 돈을 벌어놓은 후에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계획을 입양기관에 알리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그 기관은 장애아만 돌봐 주는 곳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뜻을 굽히지 않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복지사는 태도를 바꾸어 출산 및 입원비용과 그동안 아이의 위탁비용(하루 2만 원씩)을 지불하고 아이를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이를 데려가려면 아이 아빠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양가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양가부모님을 모셔와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복지사에게는 그러한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저와 아이아빠는 아이의 입양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동의한 지 일주일만인 2008년 5월 13일 아이는 저희를 떠나 양부모에게 보내졌습니다.

입양상담동안 상담사는 내내 저의 무능력함과 양부모의 부유함을 비교하면서 어느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행복이겠는지 생각해 보라며 저를 위축시키기 바빴습니다. 그 당시엔 누가 보아도 양부모는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저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이런 저런 말로 제가 아이를 포기시키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되찾는데 필요한 조건은 제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들은 아이아빠와 원만한 관계가 아니면 충족시키기 불가능한 것들만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양부모에게 떠나보낸 직후 저는 인터넷에서 아이를 입양 보낸 이들이 모인 카페를 접하게 됐고 이곳에서 전에 몰랐던 많은 정보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미혼모 복지시설에서는 출산 후 일 년이 지나도록 입양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미혼모를 위해 입양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연, 미혼모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고 복지사가 말한 '고아 호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입양기관을 찾은 미혼모들 중 상당수가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정보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서둘러 입양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사실도 접하였습니다. 이즈음 아이아빠도 아이를 키울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아이아빠는 아이를 입양 보낸 뒤 아이와 아이엄마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세 사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되찾아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와 저는 2008년 7월 18일 입양 기관을 다시 찾아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지만 입양기관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입양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양부모에 대한 정보는 입양기관으로서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아빠와 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탄원을 올리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알리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입양기관과 오랫동안 싸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설득하려고 노력한 끝에 결국 저희 아이는 입양된 지 10개월 만인 2009년 3월 말경 저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되찾은 기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지만, 10개월 동안 저희 아이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양부모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었습니다.

입양기관은 자신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하여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가 커다란 상처를 입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애초에 아이를 입양 보낼 생각을 한 친부모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며 저희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 상담을 받을 당시 제게 자상하게 이해와 위로의 말을 건넸던 분들은, 입양 가기 전에는 양육을 포기시키고, 입양 간 후에는 아이를 되찾으려는 것을 포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친부모가 키우려는 것에 대해 복지사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현실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이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그분들은 왜 아이가 친부모 손에서 자라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4. 큰 해일을 넘어서 우리 만나자.

저는 2007년 해외근무 중 아이아빠를 만나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만인 11월 중순경 바로 임신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가 자신의 부모님이 일찍 떠나셨기 때문에 제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여기며 평생 모시고 살고 싶고, 부모님과 양가친지를 모시고 축하 속에 결혼을 하고, 아이 역시 교육시키기 좋은 선진국에서 기르자며 저를 설득하였고 그러한 약속의 말을 믿고 아이아빠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약속을 믿고 출산을 결정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아이 아빠가 하는 사업은 전혀 성사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생활이나 기타의 부대비용 모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혼전임신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를 강

력하게 권유하였지만 당시 저는 아이아빠를 믿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제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갈망했기에 부모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매일을 울면서 부모님이 설득되실 날만 기다렸습니다. 임신 4개월 2008년 1월 초 아이아빠와 한번은 크게 싸우고 둘이서 함께 병원을 찾아간 적은 있었지만 두 사람 다 상담 전에 다시 발길을 돌려 아이를 멋지게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화해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5월말까지도 자신이 진행하던 일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을 자신이 없었던 아이아빠는 1개월 이내에 일이 성사가 될 테니 멋지게 부모님 허락을 받고 아이와 함께 하자며 임신 7개월에 저에게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아빠는 약속했던 아이출산일까지도 오지 않았고 출산진통 중 전화 한통과 문자4통으로 출산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사죄할 뿐이었습니다. 2008년 7월 18일 저는 자연분만을 시도했지만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절망감과 슬픔에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친언니의 수술동의를 얻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그날 밤 9시 7분 예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수술실 반신마취 상태에서 처음 눈앞에서 만난 제 딸은 전혀 낯설지 않고 임신 중 상상으로 그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반갑고도 신기한 그 느낌은 어머니라는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첫 느낌을 기억한다며 간호사는 제 젖꼭지에 아기 입을 살짝 갖다 대도록 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하며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취 기운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침상에 누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출산일부터 아이아빠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어렵게 지인들을 통하여 아이아빠와 연락이 닿았던 사람을 추적한 결과 출산 후 1개월 즈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앞에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아이아빠가 아이와 저를 만나러 오기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이를 위해 출산, 양육비용과 있을 거처를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아빠의 경제적 무능력과 잦은 잠적에 부모님은 아이가 있음에도 결혼을 반대하시고 아이를 입양하라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얼마간의 사회경력이 있었던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아이가 있으면 아이아빠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입양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매달 결정기한을 주시며 ‘아이를 위해서 빨리 결정해라’, ‘아이를 선택할 것이면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어라’하시며 입양을 권하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정에 매일 우시면서 심한 우울증세를 보여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은 가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 모르게 다른 가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 아이를 안아주거나 정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강력한 반대뿐 아니라 출산비용과 생활비 충당에 쓰느라고 저축과 연금까지 모두

해지하고 은행잔고는 바닥이 나 아이 옷이나 분유를 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나서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간의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차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기를 보면 사랑스러웠지만 미안한 마음은 커져갔고 현실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4개월째 되던 2008년 11월경 모처럼 마음에 드는 구인광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던 저는 입사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아이를 맡기고 서울에서 시험을 두 차례 거쳐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독촉하였기에 입양 상담은 받아보고 결정하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저는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A 입양기관에 전화하여 상담하면서 가능하다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으니 부산 지역에서 미혼엄마가 아이를 맡길 곳이 있는 지 문의하였는데 상담자는 일을 하는 미혼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보육 시설이 한 곳 있고 낮 시간 동안 운영하지만 현재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마저도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어 신청한 후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다른 입양기관에 전화 문의 하였고 2008년 11월21일 제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의 지원 마감을 하루 남겨두고 마음이 급해진 저는 11월18일 화요일 오후 12시 이번 구직 기회를 꼭 잡아 취업한 후 부모님을 설득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구직 기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가 좋아 보이고 버스로 한번 만에 집으로 방문할 수 있는 입양 기관을 찾아 문의한 후 당일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에 상담사가 저희 집을 방문하여 저와 아이아빠의 개인정보, 기호, 가족관계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묻고 친권포기서 및 입양 동의서를 작성해 갔습니다. 상담과 서류 작성에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친권포기서 뒷면에 아이아빠 동의가 없으므로 이후 친권에 대해 양자 간 문제가 생길 경우 친모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자필 서명을 요구하였고 저는 요구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동사무소에서 들러 입양에 필요한 부속서류 발급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상담사는 상담 중 아이가 신생아가 아니라 4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입양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였고, 저는 빨리 직장을 구해 부모님을 설득하고 아이를 찾아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기를 복지사에게 보낼 때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에게 먼저 연락을 달라고 당부를 하고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아이를 맡긴 다음 날 입사지원서를 넣고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주말을 넘긴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 지 궁금하여 상담했던 사회복지사와 확인전화를 하였는데, 아이가 위탁가정에서 울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으며 위탁가정에서 예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날 제가 했던 아이 예방접종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예방접종을 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열흘 뒤인 2008년 11월 28일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아이가 그 전날 입양보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아이를 담당했던 복지사가 외근을 간 사이 입양 상담 부부가 방문했는데 제 아이가 마음에 든다며 숙려기간 없이 아이를 보자마자 바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문자로 받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입양기관에 전화 연락을 하여 아이를 지금이라도 찾아오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제가 취업인 상태도 아니고 저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상담 복지사는 아이가 이미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 되돌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절차적으로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아이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반문하였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상태에서 저는 입양기관을 상대로 부탁도 하고 항의도 하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았습니다.

현실이 절망스러웠지만 아이를 데려 오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입양 부모와 접촉을 하려고 아이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고 문자 담당 복지사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지금은 입양부모가 그런 연락을 받으면 불편하고 걱정스러워하니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연락하여 물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중순 경 입양 부모가 아이의 어릴 적 사진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전하여 저는 몇 개의 사진을 골라 보내면서 저 역시 아이의 근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양부모에게 전하였습니다. 2009년 1월초에 입양 부모로부터 아이의 사진 몇 장을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가족구성원 중 언니와 형부의 지지를 얻게 되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올리기도 하고 비슷한 사정에 있는 다른 미혼모가 아이를 찾은 사례가 있는지 검색하며 지내다 다행히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23일 저는 아이를 찾겠다는 결심을 공식화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연락하게 된 배경과 상담과정을 진술한 메일을 담당복지사에게 보내고 전화로 아이를 찾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양부모에게 저의 뜻을 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전화와 메일로 입양 기관에 연락하여 입양부모에게 보내는 저의 편지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이들은 미혼모인 제 처지와 입양부모의 좋은 양육환경을 비교하며 제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보내지기 전에 아이엄마인 저에게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했던 요청을 왜 입양기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느냐고 물었지만 입양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입양부모가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좋은 배경과 양육 환경을 가진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사랑받으며 잘 자라고 있으니 빨리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입양부모의 정보는 비밀이어서 알려줄 수 없으며 입양부모들이 연락받는 것을 거절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양기관과 한참을 싸우면서 아이의 얼굴을 정말 다시 볼 수 있을지 절박하고 가슴이 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백사장에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데 눈앞에 너무 아름다운 푸른색의 거대한 해일이 백사장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곁에 앉아 있던 친구는 겁을 내며 도망가자고 하였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커다란 물결이 저를 압도하였지만 전혀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평온하였습니다. 해일이 물러난 후 물에 젖은 흔적도 없고 오히려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을 통해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9년 2월 13일 입양기관과의 상담과정과 아이를 되찾기 위한 의지를 다시 담당복지사에게 메일로 보내고 상담사와의 내용을 녹음해가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부모에게 저의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해달라고 입양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입양상담 시에 아이가 입양가기 전에 엄마에게 연락을 달라고 부탁한 내용, 아이를 위탁하고자 입양서류를 쓰게 된 점 등에 대해서 글로 호소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상담복지사가 아닌 아이의 입양을 주선하신 입양기관 소장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16일 입양기관 소장님으로부터 양부모에게 편지는 직접 전달을 하지 않았지만 전화로 조심스럽게 저의 상황과 의지를 전달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양부모가 더 이상의 연락을 원하지 않으며 아이가 성장하고 난 후 아이가 원한다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하였습니다. 입양기관 소장님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입양 후 예정된 가정방문 때 입양부모에게 다시 한번 저의 뜻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9년 2월24일 입양기관 소장님이 아이를 입양한 가정으로 방문을 하게 되어 다시 제 입장과 의지를 설명하고 전달하였습니다. 가정방문에서 돌아온 소장님은 입양부모가 제가 아이아빠와 다시 합칠 가능성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혼자 키우겠다면 아이를 위해서 보낼 수 없다고 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7일 입양기관 소장님에 따르면 어렵게 입양모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나 입양부와 다른 가족의 동의를 얻기는 아직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9년 3월5일 저의 마음과 의지를 헤아려 준 입양부모님이 아이를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2009년 3월6일 마침내 저는 아이를 다시 제 가슴으로 다시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되찾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를 설득한 결과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입양 상담 중 엄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보육이 가능한 시설이 있었거나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양육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었다면, 입양보내기 전 연락을 달라고 한 제 요청이 입양기관 복지사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면, 저와 만나 상담했던 사회복지사와 입양을 주선했던 담당자가 동일인이었다면 아이와 헤어지는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엄마들을 위해 제공되는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위의 압박에 눌린 상황에서 미혼엄마들이 서둘러 입양 보내는 어설픈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입양은 엄마와 아기에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처럼 마음 아픈 경험이 다른 엄마들에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 내 아이를 만나는 시간은 30분

2008년 11월 27일 임신 7개월경 저는 전화로 경기도의 한 미혼모시설에 상담을 한 후 입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양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입소하였지만 입소 후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과 아이아빠와의 관계 등으로 입양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산 전 3번에 걸쳐 입양상담을 받았는데 출산 예정일 한달 전 쯤 마지막 입양 상담을 하면서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서 및 이후 아이아빠와 친권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시에 모든 책임은 친모가 진다는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0일 오후 8시 39분 건강한 여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하였고 따로 입양기관에 출산소식을 알리지 않았으나 3일 후인 2월23일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미혼모 시설로 가서 제 아이를 1시간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양기관의 본사에 위치한 신생아실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난 후에 위탁모에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산후조리를 위해 시설로 돌아가 1개월 정도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기를 보낼 때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보냈고 한편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아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돌아와 있는 동안 다른 미혼모들이 양육을 결심하는 것을 보고서는 우울해지고 마음 한 곁이 항상 슬펐습니다.

출산 후 입양기관에 연락했을 때 아이가 입양 갈 때까지 엄마가 원하면 아이가 태어난 후로 매달 한 번씩 만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입양기관 본사의 임시보호 시설을 방문해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강검진이 끝나 위탁가정에 맡겨졌고 두 번째달에 제가 아이를 만나려고 했을 때 아이가 감기기운이 있어 엄마와의 만남을 다음 달로 미루자는 위탁모의 연락을 상담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후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아이가 3개월일 때 다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입양기관 본사의 사무실에서 만나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양육에 대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번 아이를 보러 가면 30분밖에 면회를 할 수 없어 더 보고 싶다고 부탁하면 위탁모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사회복지사가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이 어떤 것 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과 그동안 제가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의 몫까지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양육 의지를 굳히고 아이가 입양가기 전이니 아기를 되돌려 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양기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할까봐 혼자서 속앓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2곳의 온라인 카페에 가입을 하고 저와 유사한

입장에 있다 아이를 되찾아 온 엄마들의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혼모 당사자 모임인 미스맘마미아에 2009년 9월 25일 상담글을 올리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미스맘마미아를 통해서 오랜 시일이 걸려 아이들을 되찾아온 엄마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한편으로는 아이를 찾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스맘마미아에 지금 아이가 위탁 가정에 있고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면中间的 집과 모자원을 거쳐 아이를 잘 키울 의지가 있다고 글을 올리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낳고 되찾아 온 엄마의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양기관에 아이를 되찾겠다는 요청을 하려던 했던 2009년 10월 7일 담당복지사가 아이의 입양이 결정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입양기관으로 달려가 아이를 되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담당복지사는 제가 아이를 찾고 싶다는 얘기를 입양기관에 먼저 하지 않고 미스맘마미아 같은 다른 곳에 한 것을 질타하며 그날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제가 해외입양을 선택했기에 현재 아이의 양부모님이 정해졌고 이제 티켓팅만 남았다고 양부모님과 저의 조건을 비교해하며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라며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고 데려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담사는 아이와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였고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 다시 찾아갔을 때 입양기관은 아이를 위탁가정에서 데려 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서 아이를 아예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이 말에 화가 난 저는 아이를 당장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육의사를 밝히고 아이를 데리러 간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하였지만 입양기관은 그날까지도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엄마인 저의 양육 의지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저의 단호하고 끈질긴 요청에 사회복지사가 위탁모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날 오후 4시 30분 정도 아이가 입양기관에 도착하였습니다. 헤어진 지 8개월만인 2009년 10월 14일 마침내 제 아이는 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려서 엄마가 안 계셔서 어떤 엄마가 되어야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에게 받고 싶었던 것만큼은 제 아이에게 해주리라 다짐하며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좋은 집이나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하지만 저는 아이와 저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 입니다. 언제나 저만을 바라보는 이쁜 딸이 있고 늘 혼자였던 저에게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아이를 입양 보냈다면 평생 아이를 그리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힘들지만 아이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든 현실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Ⅲ. 입양기관 상담서비스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다섯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테고 처음 접하는 내용으로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4년 동안 미혼모들이 입양 기관을 방문하거나 상담할 때 겪는 실제 경험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입양상담을 받은 5년 전이나 최근이나 입양기관에서는 관례적으로 출산 전에 입양 동의서 및 친권포기서를 작성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미혼모양육권에 대한 상담은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서는 입양과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기 힘들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 대다수의 미혼모들이 출산 전 정보나 상담을 위해 인터넷을 찾게 되는데 미혼모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의 목록이 펼쳐집니다. 또한 입양기관과 상담 시에 아이 양육정보는 거의 얻을 수 없는 반면 입양에 대한 정보만을 주로 접하게 됩니다.

한국은 세계13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지난 2007년까지 세계에서 4번째로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는 아동 수출국입니다. 1953년 이래에 해외에 입양된 아동의 수는 16여만 명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국내입양을 최소한 5개월 동안 시도한 이후 해외입양을 보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를 입양한 유명 연예인들이 입양홍보 대사로 나서 입양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2008년 처음으로 국내입양(1388)이 해외입양(1264)보다 늘었지만 매일 3명의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어진 셈입니다.

입양 담론에서 아이와 아이의 친부모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입양은 **친부모와 아이의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입양을 보내는 친모가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는 미혼모를 아이를 버리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입양기관들은 “버려진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쉽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실제로 미혼모들에게는 입양과 양육을 결심할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혼모들은 아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양이라는 과정의 이면에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숨어서 피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친부모들이 있습니다.

미혼모 당사자 모임 조직: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결성

절박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에게 양육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아기를 포기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미혼모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3월 14일 4명의 엄마들이 모여 미혼모들의 당사자 조직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고, 2009년 6월 29일 네이버에 미스맘마미아라는 카페를 열고 운영하면서 도움과 정보가 필요한 미혼 엄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¹⁾

위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입양기관은 미혼엄마들을 위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양기관과 미혼모 시설은 분리되어야 하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미혼모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은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의 광고와 정보들이 대부분으로 이때부터 입양중심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보다는 양육을 먼저 시도한 후 여러 번의 숙고를 거쳐 최종방안으로 입양이 주선되어야 합니다. 양육 위주의 상담이 선행된 이후에도 여러 번의 상담을 거쳐 입양결정이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미혼모들은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였기 때문에 임신기간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과정을 겪고,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앞의 사례에서 처럼 양육을 희망하더라도 현실적 이유로 인해 입양과 양육 결심을 계속 번복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입양 결정 전 입양과 양육의 선택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최영희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논의된 대로 입양기관은 미혼모부자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할 때 친권포기각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미혼모부자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혼모들에게 충분한 상담과 시간만 주어진다면, 입양을 결정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혼모 상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어떤 한 시설의 경우 양육 결심을 하는 비율이 82%나 되지만,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출산한 미혼모들 중에서 양육 결심을 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되찾고자 하는 미혼부모에게 입양대기 기간 동안의 소요된 위탁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제지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미혼부모에게 이러한 비용은 아이를 포기하게 하는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양육미혼모부자 가정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과 동시에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춰져야 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미혼모 발생률이 가장 낮지만, 미혼모의 자녀들은 전체 입양 아동의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의 자녀가 대부분 입양 보내지는 것은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출산 하였을 때가 첫 번째 탄생이고 입양기관에서 되찾아왔을 때가 두 번째 탄생입니다. 아기를 입양을 보내고 마음 아파하며 매년 아이의 생일날 옷을 사두는 엄마가 있습니다. 또 입양 보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엄마를 찾았을 때 잘살아

1) <http://cafe.naver.com/missmammamia>

가고 있어도 죄인이 되고, 못살고 있어도 죄인일 것이라 자책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만약 출산 전 미혼모들에게 더 많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미혼엄마들이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앞서 말씀 드린 사례 당사자이신 미혼의 양육모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겪은 아픔을 또 다시 겪는 아이와 엄마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미혼의 양육모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여성들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 장래 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키울 것입니다. 제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 지원 방안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I. 들어가는 말¹⁾

새로운 세기로의 전환과 함께 한국사회는 더욱 급속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근자에 들어 결혼의 지체 및 출산연기와 기피로 인한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고, 이혼이나 독신인구의 증가와 같은 개인화 경향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과 비정형 가족형태가 증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급속한 노령화와 최저출산, 외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섹슈얼리티와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더불어 가족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안팎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친밀성과 섹슈얼리티의 변화가 한국사회의 주요한 변화를 선도하는가 하면,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기성의 가부장적 관념이나 정상가족이데올로기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나 성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남녀 성관계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사회적 허용의 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남녀의 자녀출산에 관해서 관대하지 않다. 즉 사랑이 전제된 남녀의 혼전성관계가 더 이상 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녀 출산만은 합법적인 남녀관계, 즉 결혼제도를 통과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가족제도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김혜영, 2009).

이런 점에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공개될 수 없는 개인사이자, 당사자인 여성에게는 평생에 걸친 불명예의 낙인을 안겨주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같은 사회분위기에서 미혼모는 쉽게 부정되고 비가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편견은 미혼모와 이들 자녀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은폐시키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건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혼여성의 낙태와 출산에 관한 정확한 추이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된 미혼모 수는 미혼모지원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증가해 왔으며,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미혼의 한부모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성적 욕망을 추동하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성의식의 변화로 혼전 성 경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미혼여성들의 임신과 낙태, 출산의 경험비율 역시 감소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와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로 여성들은 그들만의 친밀한 관계 맺기를 고수하거나 기성의 관행으로 벗어난 새로운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비난에

1) 이 글은 2009년도 본원에서 수행되었던 과제(「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김혜영, 선보영, 정재훈, 김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12) 가운데 해당 내용을 발췌, 수정한 것임.

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행동의 결과를 은폐하기 보다는 출산 자녀에 대한 책임성을 깊게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5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이후 양육미혼모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역시 현재 임신 중인 미혼모의 약 30%가 자녀양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대상자 가운데 약 54%가 현재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을 계획 중라고 응답하고 있어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도적 결혼관계와 출산행동 및 자녀양육이 각기 다른 논리에 의해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제도적인 혼인관계와 별개로 자녀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장의 진입부터 차별적 고용관행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쉽사리 자립 기반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원이나 원가족 혹은 사회적 지원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양육미혼모들의 특성과 생활세계를 살펴보고, 미혼 한 부모들의 사회적 권리보장과 더불어 이들 자녀세대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미혼모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미혼모의 실태파악과 미혼모의 발생 원인(한국여성개발원, 1984; 김근조, 1995; 안순덕, 1984)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이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의식(이양미, 2000; 이유정, 1996; 이지은, 1995; 최용희, 1997)이나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이나 가족체계(한영주, 1998; 배영미, 2001), 양육미혼모에 대한 관심(김유순, 김은영, 2008; 이명순, 박주현(2008); 김윤아, 이형하, 김혜선(2008))과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노충래, 김원희(2004) 등으로 점차 연구관심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생활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가 시도되면서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외 관련 정책연구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예컨대 정경순(2008)은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다루면서, 이들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경험하는 시점부터 성관계나 및 피임 등에 관한 의사소통이 대단히 미숙할 뿐만 아니라 임신사실의 확인 직후에 경험하는 극심한 혼란함을 경험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복숙, 전영주(2005)는 에서 미혼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가족구성원들의 삶과 역사적 맥락을 통해 한 인간의 심리적 내면세계를 추

론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혼모의 생애사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천혜정, 배선희, 송말희, 송현애, 전길양(2002) 또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10대 미혼모는 산전관리가 소홀하고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죄의식, 수치심, 소외감 등에 시달리게 되고 학업을 중단하는 등 기존의 생활양식에서 이탈하여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10대 초반부터 구체적인 피임교육을 필수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최승희(2002)는 “10대 미혼모에 대한 임상적 개입의 필요성”이라는 연구를 통해 외국의 경우에는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슬픔과 상실의 감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정서적 개입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Roles, 1989; 최승희, 2002). 이에 비해 한국의 10대 미혼모는 여전히 소외된 계층이자 문제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자체가 미혼모와 청소년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서 매우 취약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 특히 10대 미혼모들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승희는 무엇보다 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정서인 “슬픔”과 이를 원조하기 위한 개입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출산후 미혼모들의 입양과 양육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미향, 정은미(2001)이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의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미혼모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김만지(2001)는 청소년기 임신은 임신한 10대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Spear, 1997), 이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청소년기의 임신은 낮은 교육, 직업달성, 복지의존, 결혼의 어려움은 물론 사춘기와 임신, 엄마로서의 역할, 때로는 결혼이라는 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pear, 1997; Kemp, 1997). 또한 윤미현, 이재연(2000)은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혼전 성태도가 혼전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집단의 성태도가 혼전성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최근의 10대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의 학습권(홍순혜 외, 2007; 석창훈 외, 2008)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기의 미혼모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박탈이 향후 이들의 사회적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학습권과 진로 지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미혼모 연구의 또 다른 연구경향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혼모로서 자녀출산이후 봉착한 자녀양육문제에 관한 것이다. 즉 제도적인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미혼여성의 대다수는 낙태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미 자녀출산을 앞두거나 자

녀를 출산한 여성들은 새로운 선택의 지점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미혼모로서 그들 자신과 자녀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결정짓는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혼모 관련 연구 또한 아이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에 관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혼모의 자녀양육의 문제는 김윤아, 이형하, 김혜선(2008)의 “미혼 양육모의 양육체험”을 통해 부정적인 주위의 시선과 궁핍하고 팍팍한 살림살이를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의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양가적 감정, 즉 자녀양육결정을 후회하거나 자녀에게 감정적인 분노를 투사하는가 하면, 때로는 그들로 인해 삶의 의지와 힘을 확인하거나 원가족과 화해의 계기를 얻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김유순, 김은영(2008)은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삶과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적잖은 10대 청소년들이 출산과 양육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대별되는 연구로는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명순, 박주현(2008)의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와 노충래, 김원희(2004)의 “시설거주 미혼모의 입양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입양결정요인을 살펴본 노충래, 김원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고 미혼부 및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유아에 대한 입양태도가 긍정적이고, 학력이 낮거나 미혼부 혹은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는 미혼모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를 지적할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온 사실은 바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나, 최근 들어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의식조사”가 있다(김혜영 외, 2008년).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차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혼모와는 일정한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임애덕, 최승희(2006)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와 문의승·임애덕(2005)의 “미혼모·미혼양육모와 입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가 있는데, 이는 모두 제주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미혼모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확인한 바, 미혼모이 ekdidgola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혼 여성의 출산연령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30대 이상의 미혼모 역시 점차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육미혼모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은 여성자신의 자립기반확보 뿐만 아니라 자녀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

소는 물론 이들 자녀의 건전한 사회화 과정에 상당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양육미혼모들의 특성이나 이들의 자립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미혼모들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의 자립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자립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미혼모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미혼모와 연관된 기존의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질적 조사와 양적조사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개념적 도구와 분석틀을 발견하였다. 또한 미혼모의 내밀한 생활세계의 이해와 다양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일대일의 면접방식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심층인터뷰는 총 45명의 미혼모와 5명의 미혼부를 대상으로 2009년 6월 말부터 시작하여 8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semi-structure)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미혼으로서 출산에 이르게 된 동기와 주변의 도움여부, 출산 후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학업이나 진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이나 지원욕구 등을 질문하였고, 각기 다른 선택을 한 미혼모들의 생활세계의 변화, 자녀출산 후 모성실현의 어려움이나 실제 자녀양육문제, 일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원가족의 지원여부 및 지원욕구 등을 질문하였다. 한편, 심층인터뷰 진행은 정보제공자의 사전 동의 과정을 거쳤으며, 인터뷰의 내용은 정보제공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설문지 조사 또한 병행되었다. 본 조사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양육 미혼모’와 ‘비양육 미혼모’ 설문문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미혼모 실태 조사는 연구진이 사전에 관련 기관장과의 두 차례의 워크숍 진행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전국 48개 기관을 통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의 최종 완료시점은 8월 10일이었으며, 최종 조사에는 총 43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603부였으나, 최종분석에는 571명의 응답만이 사용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를 “현재 제도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이미 아이를 출산하

였거나 현재 임신 중인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에 포함되는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였거나 현재 임신한 여성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 응답한 미혼모들을 ‘미혼모’의 정의와 연동된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를 이미 출산한 미혼모들을 현재 양육여부에 따라 구분해보면, 양육미혼모는 190명이며, 자녀를 출산했으나 현재 양육하지 않은 미혼모들은 총 1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인 미혼모와 현재 양육하지 않은 출산미혼모를 향후 자녀양육 의사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즉 현재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하고 있는 미혼모들의 과반수(59.1%)이상은 입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0%만이 양육을 계획하고 있다.

〈표 1〉 조사대상자 자녀 양육계획

(단위: 명, %)

구분	양육 미혼모	현재 비양육 미혼모	전체
현재 상태			
출산	190(100.0)	144(37.8)	334(58.5)
임신 중	0(0)	237(62.2)	237(41.5)
전체	190(100.0)	381(100.0)	571(100.0)
향후 양육 계획			
입양	0(0)	218(59.1)	218(39.0)
양육	190(100.0)	109(29.5)	299(53.5)
미결정	0(0)	42(11.4)	42(7.5)
전체	190(100.0)	369(100.0)	559(100.0)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혼모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혼모 가운데 ‘20-24세’의 연령분포가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 즉 ‘19세 이하’의 미혼모가 30.6%, 25-29세는 20.9%, ‘30세 이상’은 16.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 가운데 10대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 이는 본 조사결과만의 특이사항이기 보다는 미혼모 가운데 10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본 조사에 앞서 2009년 6월 30일 현재 전국 43개 기관의 미혼모 입소현황 분석에서도 10대의 비중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초반이하의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은 미혼모가 저연령화되면 될수록 이들의 재임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미혼모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3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재이상’이 27.6%, ‘고등학교 재학·휴학·중퇴’가 24.4%, ‘중졸이하’가 13.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편중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에 응한

미혼모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2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1.1%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유형은 ‘미혼모자시설’이 7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15.1%, ‘자택’이 7.1%,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이 4.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생존여부를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모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친이 모두 생존하고 있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부모 중 한쪽이 계부모인 비율이 ‘30대 이상’의 경우 4.3%인 반면 ‘19세 이하’는 17.5%에 달해,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모의 원가족이 재혼가족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 가족구성의 변화가 10대 미혼모의 발생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양친생존의 비율은 감소하는데 반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친생존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양친 생존이 미혼모의 교육수준과 관련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생존 여부

(단위: 명, %)

구분	양친생존	부모 가운데 한분 생존	한 분은 계부모	양친 모두 사망	전체	$\chi^2(df)$
전체	338(61.7)	130(23.7)	62(11.3)	18(3.3)	548(100.0)	
연령						39.976(9)***
19세이하	115(69.3)	20(12.0)	29(17.5)	2(1.2)	166(100.0)	
20-24세	109(61.9)	42(23.9)	21(11.9)	4(2.3)	176(100.0)	
25-29세	64(57.1)	34(30.4)	8(7.1)	6(5.4)	112(100.0)	
30세이상	48(52.2)	34(37.0)	4(4.3)	6(6.5)	92(100.0)	
전체	336(61.5)	130(23.8)	62(11.4)	18(3.3)	546(100.0)	
교육수준						18.721(9)*
중졸이하	36(51.4)	18(25.7)	13(18.6)	3(4.3)	70(100.0)	
고등학교 재학·휴학·중퇴	78(59.5)	30(22.9)	19(14.5)	4(3.1)	131(100.0)	
고졸	107(58.2)	51(27.7)	17(9.2)	9(4.9)	184(100.0)	
대재이상	112(72.7)	29(18.8)	11(7.1)	2(1.3)	154(100.0)	
전체	333(61.8)	128(23.7)	60(11.1)	18(3.3)	539(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앞서 기존연구를 통해 미혼모들이 점차 양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조사결과 역시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미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미혼모와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모두 합한다면,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58.1%) 미혼모들이 자녀양육을 선택하거나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실, 작년도 미혼모시설(모자공동생활가정 포함)을 다녀간 총 2,267명의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양육할 의사를 밝힌 경우는 총 34.8%로 나타났음에 비추어본다면, 2009년도 조사결과에서는 상당히 양육의사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 미혼모의 자녀양육 선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미혼모의 특성에 따라 양육의사 여부를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 특성에 따른 입양 및 양육 선택

(단위: 명, %)

구분	입양	양육계획	양육	전체	$\chi^2(df)$
전체	218(42.1.0)	109(21.0)	91(36.9)	518(100.0)	
연령					44.527(6)***
19세이하	80(50.3%)	36(22.6%)	43(27.0%)	159(100.0%)	
20-24세	81(49.7%)	34(20.9%)	48(29.4%)	163(100.0%)	
25-29세	42(40.0%)	16(15.2%)	47(44.8%)	105(100.0%)	
30세이상	13(14.6%)	23(25.8%)	53(59.6%)	89(100.0%)	
전체	216(41.9%)	109(21.1%)	191(37.0%)	516(100.0%)	
교육수준					8.568(6)
중졸이하	35(51.5%)	17(25.0%)	16(23.5%)	68(100.0%)	
고등학교 재학·휴학·중퇴	51(41.1%)	31(25.0%)	42(33.9%)	124(100.0%)	
고졸	71(41.5%)	32(18.7%)	68(39.8%)	171(100.0%)	
대재이상	57(39.3%)	28(19.3%)	60(41.4%)	145(100.0%)	
전체	214(42.1%)	108(21.3%)	186(36.6%)	50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조사대상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를 질문한 결과 미혼모들이 임신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체로 임신경과 3개월 전후한 시기로 나타나, 임신사실을 모르거나 늦게 인지할 만큼 무지하여 혼전에 출산한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미혼모들의 임신경험을 살펴본 결과, 본 조사대상자의 약 45%가 이전에도 임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의 재임신율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게 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전 임신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입양의 경우 이전 임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2.4%(92명)로 나타났고, 양육을 계획하고 있거나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양육을 계획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이전 임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0.5%(55명)로 높게 나타났다.

Ⅳ. 양육미혼모의 생활세계 및 양육결정요인

1. 양육미혼모의 특성

먼저,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을 크게 양육을 결정하였거나 이미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들과 임신 중에 이미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로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다양하게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리며, 교육수준이 낮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 반면 양육모들은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에게 입양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이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34.4%)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29.8%), ‘부모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서’(9.8%), ‘나의 장래를 위해서’(7.4%), ‘가족들의 권유로’(7.0%), ‘아기 아버지와 결혼할 수 없어서’(5.1%) 등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 관련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의 경우, 자녀를 키우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로 ‘내 아기는 내가 키워야 하므로’가 40.8%로 가장 많았고, ‘아기를 사랑해서’가 33.0%, ‘입양하면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가 13.6%, ‘아기 아버지와 결혼할 것 같으므로’가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결혼, 성관계, 임신 및 양육가치관을 중심으로 미혼모들의 의식을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다시 양육과 비양육 미혼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 결혼, 성관계, 임신에 대한 태도는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와 ‘혼전 성관계로 임신했다면, 두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혼전 성관계로 임신했다면 낙태해야 한다’, ‘결혼계획이 없는 혼전임신이라도 출산하는 것이 좋다’는 4문항에 대해 1을 ‘전혀 아니다’로, 4를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수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가장 동의정도가 높았던 항목은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평균 3.02점)으로, 이는 대체적으로 미혼모들은 애정관계를 전제로 한 성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혼전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했을 경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2.26점의 동의를 나타내어 혼전 성관계 및 임신을 결혼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혼전 성관계로 임신했을 때 낙태하는 것과 결혼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혼전 성관계로 임신했다면 낙태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낮은 동의정도(1.75점)를 나타낸 반면, 결혼계획이 없더라도 출산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정도(2.52점)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와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집단의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다만 혼전 성관계로 임신했을 경우와 낙태에 관한 태도나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 출산에

대한 태도는 미혼모 집단 내부에서도 다소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집단에 비해 ‘혼전성관계로 임신을 했다면 낙태를 해야 한다’ 진술에 더 많이 동의하였으며, ‘결혼계획이 없더라도 출산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혼전 성관계로 인한 임신은 낙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미혼모들이 애정을 전제로 한 성관계에 대해 허용정도가 높지만, 혼전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했더라도 반드시 결혼을 통한 출산을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 전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결혼, 성관계, 임신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남녀가 서로사랑한다면,결혼전에도 성관계할수있다	혼전성관계로 임신했다면, 두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한다	혼전성관계로 임신했다면, 낙태해야한다	결혼계획이 없는 혼전임신이라도 출산하는것이좋다
전체	3.02	2.26	1.75	2.52
미혼모유형				
입양	2.98	2.27	1.81	2.43
양육	3.07	2.27	1.69	2.58
t	-1.72	0.023	2.242*	-2.428*
연령				
19세이하	3.05	2.28	1.76	2.55
20-24세	3.03	2.22	1.79	2.45
25-29세	2.99	2.25	1.71	2.59
30세이상	2.97	2.33	1.71	2.51
F	0.549	0.607	0.658	1.141
교육수준				
중졸이하	2.93	2.22	1.93	2.38
고졸미만	3.06	2.30	1.76	2.58
고졸	3.03	2.27	1.78	2.53
대학재학이상	3.01	2.24	1.64	2.52
F	0.798	0.345	4.089**	1.417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1: 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

주2)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양육가치관은 ‘불완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입양이 낫다’ 등의 6개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로 측정하였는데, ‘전혀 아니다’를 1로, ‘매우 그렇다’를 4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6개 문항이 전체적으로 2.5-2.9점의 분포를 나타내어 문항 간에 뚜렷한 태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내었던 ‘끝까지 아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불완전한 환경에서는 입양이 낫다’는 매우 근소한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된 견해에 대한 동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 두 문항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두 문항에 대한 동의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요인으로 묶기기 어렵다고 판단된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입양이 낫다’와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를 제외한 4개 문항을 규범적 가치관과 조건적 가치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반여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평균 5.17점) 보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혈연을 강조하는 규범적 요소(평균 5.57점)를 강조하는 진술에 대한 동의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의 <표 5>에서 확인하듯, 이러한 양육가치관에 있어 양육미혼모들은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에 비해 규범적인 양육가치관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양육가치관 비교

(단위: 점)

구분	조건적 가치관			규범적 가치관		
	사례수	평균	통계치(F/t)	사례수	평균	통계치(F/t)
전체평균	554	5.10		554	5.57	
미혼모유형						
입양	212	5.59	9.026***	212	5.03	-8.992***
양육	290	4.67		289	6.05	
전체	502	5.06		501	5.62	
연령						
19세이하	171	5.02	1.828	171	5.68	4.496***
20-24세	179	5.23		178	5.28	
25-29세	115	5.15		116	5.64	
30세이상	89	4.90		88	5.84	
전체	554	5.09		553	5.57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음(1-8)

주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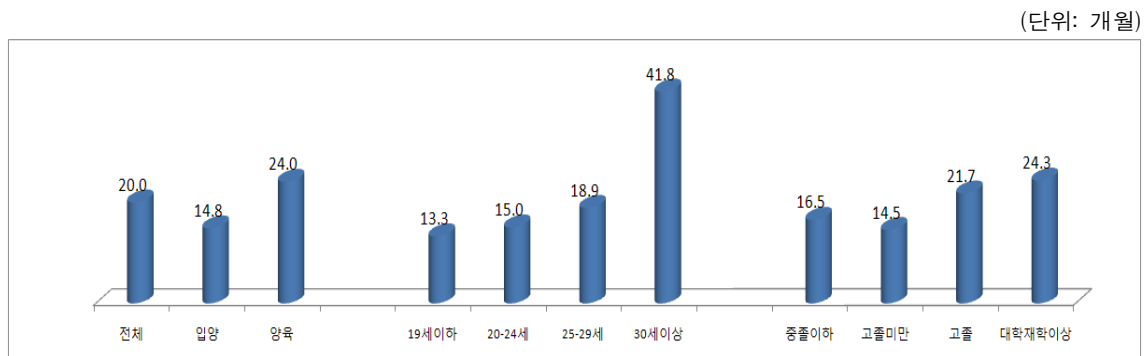
2. 미혼부와 원가족과의 관계

제도적 혼인관계를 강조해온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성경험을 그대로 드러내는 임신과 출산은 미혼여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심리적인 충격을 가져다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가장 정서적 의지처로 기능할 수 있는 사적관계망은 무엇보다 미혼부나 원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이 있는 미혼부와의 관계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결정과 향후 생활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양육

과 지원여부를 좌우하는 책임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 미혼부의 특성과 미혼모와의 관계는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혼부와의 관계는 미혼부가 임신사실을 인지 여부와 미혼부와의 교제기간, 미혼부와의 현재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임신사실에 대한 미혼부의 인지정도는 조사대상 미혼모의 83.7%가 임신사실을 미혼부에게 알렸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미혼부들이 임신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2.5%만이 미혼부에게 임신사실을 알렸다고 응답한 비양육 미혼모에 비해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93%가 임신사실을 미혼부에게 알렸다고 답하고 있다. 이때, 미혼부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미혼모들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므로’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더 이상 관계지속을 원하지 않아서’, ‘더 이상 연락이 불가능하여’,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아서’, ‘나 스스로의 책임이므로’, ‘아기 아버지가 미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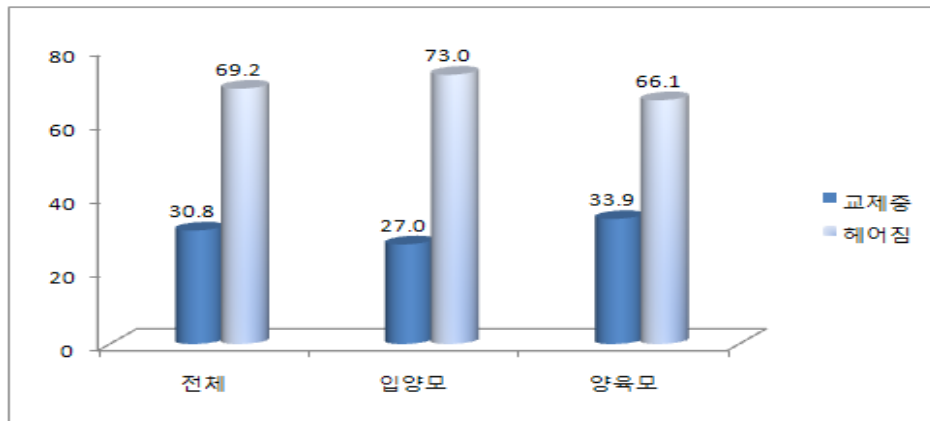
한편, 미혼부와의 교제기간은 평균 20개월이었으며,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 14.8개월,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에는 24.0개월로 양육을 선택한 경우에 교제기간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교제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수준별로도 다소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림 1〉 미혼부와의 교제기간

현재 미혼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9.2%가 ‘헤어진 상태’라고 응답하였는데, 양육모의 경우 입양모에 비해 현재까지 미혼부와 교제중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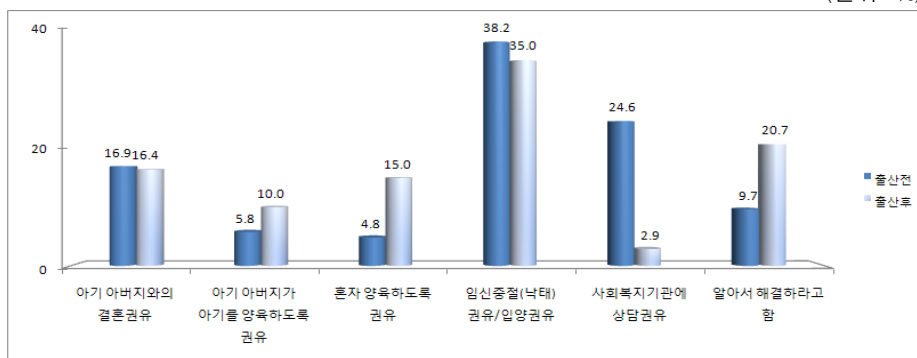


〈그림 2〉 미혼부와의 현재 상태

다음으로 중요한 원가족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역시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사실에 대한 원가족 인지여부를 출산 전의 미혼모와 출산 후 양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출산 전 미혼모의 경우, 원가족이 미혼모의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64.8%로,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에 비해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 원가족이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19세 이하의 미혼모 집단에서 원가족의 인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과정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게된 이들 가족의 주요반응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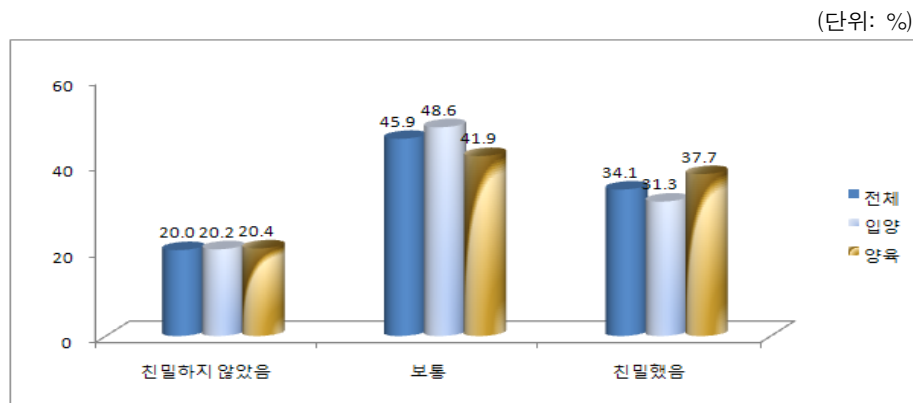
먼저 원가족이 미혼모에게 조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 전 미혼모의 경우에는 임신중절을 권유하는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기관에 상담을 권유하는 경우가 24.6%, 아기아버지와의 결혼을 권유하는 경우가 16.9%였으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경우도 9.7%에 달했다. 아기아버지나 미혼모 본인이 혼자 양육하라고 권유한 경우는 각각 5.8%와 4.8%에 불과했다. 또한 미혼모의 임신 사실에 대한 원가족의 조언내용은 미혼모가 입양 혹은 양육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 %)



〈그림 3〉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원가족의 조언

원가족의 임신 및 출산 인지 여부와 함께 미혼모의 입양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족과의 평소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34.1%가 ‘친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친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로 친밀한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평소 원가족과의 관계

3. 미혼모의 자녀양육 결정요인

이 절에서는 미혼모들의 입양 및 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연구를 통해 미혼모선택 영향요인으로 검토되었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신 및 출산관련 특성, 내적특성, 사회적 지지요인에 따라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와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임신 인지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았으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에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 전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는 입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혼부 및 원가족의 임신 사실에 대한 인지정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상대적으로 임신을 원했던 경우가 많았고, 임신 인지시기 또한 빨랐으며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미혼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에 비해 교제기간이 길며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향이 높고, 임신사실에 대한 미혼부와 원가족의 인지정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와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모 자신이 임신을 원했을수록, 임신 사실을 빨리 인지했을수록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좋은 부모로서의 사회적 여건을 중요시 하는 조건적 양육 가치관보다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모

로서의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범적인 양육가치관을 지닌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미혼부와 원가족이 임신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 미혼모의 양육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 6〉 미혼모의 입양 및 양육 선택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계수

	I	II	III	IV	
	b	b	b	b	Exp(b)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104 ***	.057	.088 *	.123 *	1.131
교육년수	-.007	.052	.092	.108	1.114
임신 및 출산특성					
임신희망여부(ref 원하지 않음)		2.598 ***	1.760 ***	1.919 ***	6.811
임신인지시기		-.440 ***	-.524 ***	-.490 ***	.613
이전임신했수		.012	.012	-.013	.987
내적 특성					
(양육에 대한) 규범적 가치관			.834 ***	.755 ***	.499
(양육에 대한) 조건적 가치관			-.730 ***	-.696 ***	2.127
규범적 가치관			-.043	-.140	.870
자유주의적 가치관			-.329 *	-.316 *	.729
가부장적 가치관			.071	.039	1.040
사회적 지지					
원가족관계					
-원가족임신인지(ref 비인지)				1.196 ***	3.307
-원가족 친밀정도(ref 친밀했음)					
친밀하지 않음				.387	1.472
보통				-.080	.923
미혼부와 관계					
-미혼부임신인지(ref 비인지)				1.797 ***	6.029
-미혼부와 교제기간				.003	1.003
-현재관계(ref 헤어짐)				-.025	.976
사회적 편견(ref 매우심각)					
없음				-.405	.667
심한편				.026	1.026
상수	-2.137	-.581	.063	-2.541	
카이제곱	22.479	98.134	170.526	191.204	
자유도	2	5	10	18	
사례수	571	571	571	571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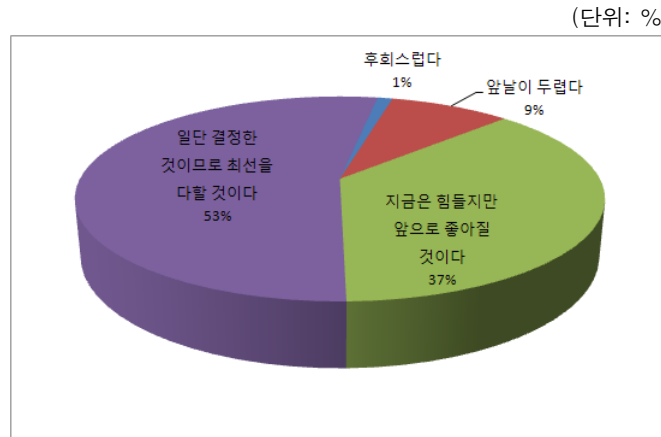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임신을 원치 않았으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신을 희망했던 경우가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미혼모의 양육결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b=1.919$, $\text{Exp}(b)=6.811$)로 확인되었다. 즉,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는 데에는 연령이나 가치관, 미혼부 및 원가족과의 관계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미혼모 자신의 의지나 내적 특성과 함께 원가족 및 미혼부의 지지 또한 미혼모의 양육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양육 미혼모들은 입양 미혼모들에 비해 원가족이나 미혼부가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에 대한 원가족 및 미혼부의 반응 또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미혼부나 원가족이 미혼모의 임신 사실에 대해 지지적일 때, 미혼모의 양육 선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양육결정 후 미혼모의 심리정서적 변화

자녀계획 결정 후 미혼모들이 느끼는 심리정서적 변화를 양육미혼모와 비양육미혼모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양 결정 후 미혼모들이 느끼는 감정은 ‘슬프고’(3.39점), ‘후회스러우며’(2.88점), ‘절망스럽고’(2.51점), ‘화가 나는’(2.46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느꼈던 반면, ‘편안하거나’, ‘홀가분한’(1.70점) 느낌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입양 결정 사유 또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제반 여건의 열악성을 크게 꼽고 있다는 이전의 결과를 상기해 본다면, 입양 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미혼모들의 부정적 감정은 향후 미혼모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지지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양육 결정 후에 후회스럽기보다는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36.9%)나 일단 결정한 일이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53.1%)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양육 결정을 후회하거나(1.1%)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8.9%) 등의 부정적 감정에 비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양육결정후 정서상태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지속되는데, 아기를 양육하면서 미혼모들이 느끼는 감정은 ‘힘들지만 아이와 함께라서 행복하다’(74.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0.4%로 뒤를 이었으며, 예상보다 더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과 생각보다 별로 힘들지 않아 결정하길 잘했다는 응답은 각각 2.8%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아기 양육으로 인해 미혼자로서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가 ‘힘들지 않다’고 응답하여 자녀양육이 주는 행복함이 미혼자로서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은 과거에 비해 ‘책임감이 강해짐’(3.30점)을 느끼거나 ‘삶의 목표가 더 뚜렷해지고’(3.30점),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3.09점)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 경험과 자립욕구

미혼모는 임신 및 출산으로 신체적,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업 및 직업의 중단을 경험하고,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의 변화, 나아가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출산 후 사회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본 연구 역시 미혼모 스스로가 느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정도를 측정해 보았다.

미혼모가 인식하는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정도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미혼모의 ‘매우 심각하다’,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합하면 약 90% 정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미혼모가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	심각한 편	매우 심각하다	전체	$\chi^2(df)$
전체	11(2.0)	50(9.0)	323(58.3)	170(30.7)	554(100.0)	
미혼모 유형						1.753(3)
입양	6(2.8)	20(9.3)	120(56.1)	68(31.8)	214(100.0)	
양육	4(1.4)	24(8.4)	172(59.9)	87(30.3)	287(100.0)	
전체	10(2.0)	44(8.8)	292(58.3)	155(30.9)	501(100.0)	
연령						27.616(9)**
19세이하	5(2.9)	28(16.4)	99(57.9)	39(22.8)	171(100.0)	
20-24세	5(2.8)	12(6.7)	109(61.2)	52(29.2)	178(100.0)	
25-29세	0(0.0)	6(5.3)	64(56.6)	43(38.1)	113(100.0)	
30세이상	1(1.1)	4(4.4)	49(54.4)	36(40.0)	90(100.0)	
전체	11(2.0)	50(9.1)	321(58.2)	170(30.8)	552(100.0)	
교육수준						52.917(9)***
중졸이하	4(5.3)	17(22.7)	40(53.3)	14(18.7)	75(100.0)	
고졸미만	4(3.0)	17(12.8)	81(60.9)	31(23.3)	133(100.0)	
고졸	0(0.0)	15(8.1)	100(53.8)	71(38.2)	186(100.0)	
대재이상	2(1.3)	0(0.0)	97(64.7)	51(34.0)	150(100.0)	
전체	10(1.8)	49(9.0)	318(58.5)	167(30.7)	544(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도를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어떠한 상황에서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취업할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결혼할 때’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 밖에 ‘이웃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병원 출입시’, ‘학교 입학할 때’, ‘직장 동료관계에서’, ‘관공서 등의 업무에서’, ‘친구와의 교제 시’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취업할 때조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미혼모가 된다는 것과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관련지어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존재함을 의미한다.

미혼모 특성별로 살펴보면,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는 ‘결혼할 때’가 가장 심각한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취업할 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육의 경우 결혼 보다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취업할 때’ 차별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20-24세와, 30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할 때’라는 응답은 19세 이하에서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재이상일 경우는 ‘취업할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이하인 경우는 ‘결혼할 때’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혼모들이 임신 이후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점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33.9%로 가

장 많았고, ‘마음의 혼란’(26.6%)과 ‘아기 장래문제’(11.2%), ‘가족과의 관계’(10.7%)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 아버지와의 관계’(6.0%)나 ‘사회적 냉대·시선’(5.4%), ‘숙식문제’(2.0%), ‘진로문제’(1.8%)등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다. 이를 미혼모의 자녀선택 유형 및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미혼모의 경우, 전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문제’(46.9%)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반면, 입양 미혼모는 ‘마음의 혼란’(43.5%)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임신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명, %)

구분	미혼모유형		전체	$\chi^2(df)$
	입양	양육		
아기 장래문제	17(7.9)	34(11.9)	51(10.2)	94.962(9)***
경제적인 문제	42(19.6)	134(46.9)	176(35.2)	
마음의 혼란	93(43.5)	36(12.6)	129(25.8)	
가족과의 관계	21(9.8)	32(11.2)	53(10.6)	
아기 아버지와의 관계	3(1.4)	26(9.1)	29(5.8)	
사회적 냉대와 주위의 시선	19(8.9)	10(3.5)	29(5.8)	
숙식문제	5(2.3)	5(1.7)	10(2.0)	
건강문제	5(2.3)	3(1.0)	8(1.6)	
진로문제	6(2.8)	4(1.4)	10(2.0)	
없음	3(1.4)	2(0.7)	5(1.0)	
전체	214(100.0)	286(100.0)	500(100.0)	

구분	연령				전체	$\chi^2(df)$
	19세이하	20-24세	25-29세	30세이상		
아기 장래문제	15(8.8)	14(8.0)	16(13.8)	17(19.5)	62(11.3)	51.883(27)**
경제적인 문제	46(26.9)	68(38.6)	34(29.3)	39(44.8)	187(34.0)	
마음의 혼란	56(32.7)	49(27.8)	30(25.9)	11(12.6)	146(26.5)	
가족과의 관계	19(11.1)	20(11.4)	14(12.1)	6(6.9)	59(10.7)	
아기 아버지와의 관계	8(4.7)	7(4.0)	7(6.0)	11(12.6)	33(6.0)	
사회적 냉대와 주위의 시선	14(8.2)	8(4.5)	6(5.2)	2(2.3)	30(5.5)	
숙식문제	3(1.8)	3(1.7)	4(3.4)	1(1.1)	11(2.0)	
건강문제	3(1.8)	3(1.7)	2(1.7)	0(0.0)	8(1.5)	
진로문제	6(3.5)	1(0.6)	3(2.6)	0(0.0)	10(1.8)	
없음	1(0.6)	3(1.7)	0(0.0)	0(0.0)	4(0.7)	
전체	171(100.0)	176(100.0)	116(100.0)	87(100.0)	550(100.0)	

구분	교육수준				전체	$\chi^2(df)$
	중졸이하	고졸미만	고졸	대학재학 이상		
아기 장래문제	10(13.7)	10(7.5)	31(16.7)	11(7.3)	62(11.4)	46.680(27)**
경제적인 문제	16(21.9)	54(40.3)	60(32.3)	52(34.7)	182(33.5)	
마음의 혼란	26(35.6)	33(24.6)	48(25.8)	39(26.0)	146(26.9)	
가족과의 관계	6(8.2)	11(8.2)	16(8.6)	26(17.3)	59(10.9)	
아기 아버지와의 관계	5(6.8)	7(5.2)	17(9.1)	4(2.7)	33(6.1)	
사회적 냉대와 주위의 시선	4(5.5)	10(7.5)	5(2.7)	10(6.7)	29(5.3)	
숙식문제	1(1.4)	1(0.7)	4(2.2)	4(2.7)	10(1.8)	
건강문제	2(2.7)	2(1.5)	3(1.6)	0(0.0)	7(1.3)	
진로문제	1(1.4)	5(3.7)	1(0.5)	3(2.0)	10(1.8)	
없음	2(2.7)	1(0.7)	1(0.5)	1(0.7)	5(0.9)	
전체	73(100.0)	134(100.0)	186(100.0)	150(100.0)	543(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양육 미혼모들은 이 밖에도 ‘마음의 혼란’(12.6%)과 ‘아기 장래문제’(11.9%), ‘가족과의 관계’(11.2%)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던 반면, 입양 미혼모들은 ‘경제적 문제’(19.6%)와 ‘가족과의 관계’(9.8%), ‘사회적 냉대·주위의 시선’(8.9%), ‘아기 장래문제’(7.9%)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응답하여 미혼모의 유형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비해 연령이 어린 미혼모일수록 마음의 혼란이나 사회적 냉대·주위의 시선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아동을 양육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9%가 ‘아기 양육비 등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으며, ‘아기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 마련’에 대한 어려움도 19.5%에 달했다. 경제적 부담과 주거환경 마련 이외에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향후 결혼의 어려움’(0.7%)이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2.4%), ‘주변의 편견과 멸시 등 따가운 시선’(3.1%)과 관련된 어려움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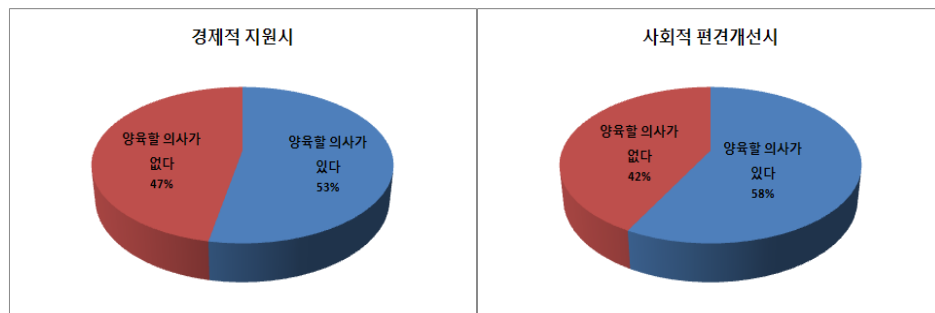
〈표 9〉 자녀양육 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구분	아기양육비 등 생활비 부담	아기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 마련	향후 결혼할때의 어려움	일-양육 병행의 어려움	가족에게 돌아갈수 없을 것 같아서	주변의 편견과 열시 등 따가운 시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전체	$\chi^2(df)$
전체	175(59.9)	57(19.5)	2(0.7)	22(7.5)	7(2.4)	9(3.1)	20(6.7)	292(100.0)	
연령									
19세이하	54(30.9)	13(22.8)	1(50.0)	4(18.2)	2(28.6)	2(22.2)	3(15.0)	79(100.0)	17.724(18)
20-24세	53(30.3)	11(19.3)	0(0.0)	6(27.3)	2(28.6)	2(22.2)	4(20.0)	78(100.0)	
25-29세	31(17.7)	13(22.8)	0(0.0)	6(27.3)	3(42.9)	3(33.3)	6(30.3)	62(100.0)	
30세이상	37(21.1)	20(35.1)	1(50.0)	6(27.3)	0(0.0)	2(22.2)	7(35.0)	73(100.0)	
전체	175(100.0)	57(100.0)	2(100.0)	22(100.0)	7(100.0)	9(100.0)	20(100.0)	292(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25(14.6)	4(7.1)	0(0.0)	2(9.1)	0(0.0)	1(11.1)	2(10.5)	34(100.0)	10.814(18)
고졸미만	46(26.9)	14(25.0)	1(50.0)	5(22.7)	0(0.0)	2(22.2)	4(21.1)	72(100.0)	
고졸	54(31.6)	20(35.7)	0(0.0)	7(31.8)	4(57.1)	2(22.2)	7(36.8)	94(100.0)	
대학재학이상	46(26.9)	18(32.1)	1(50.0)	8(36.4)	3(42.9)	4(44.4)	6(31.6)	86(100.0)	
전체	171(100.0)	56(100.0)	2(100.0)	22(100.0)	7(100.0)	9(100.0)	19(100.0)	286(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끝으로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개선될 경우,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면 양육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3.0%, 사회적 편견이 개선된다면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7.0%로 나타났다.



〈그림 6〉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편견 개선 시 양육의사(단위: %)

이러한 미혼모들의 태도를 임신 후 자녀계획에 대한 미혼모의 의향 변화와 비교해보면, 미혼모들의 태도를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로 하여금 그들 자녀와의 미래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심경변화를 표시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은 다시 처음부터 입양을 결정하고 조사시점에도 입양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입양-입양)와 처음에는 양육을 생각했으나 입양으로 변화된 경우(양육-입양), 생각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입장을 확고히 결정하지 못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경우, 양육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입양-입양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양육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에 달한 반면, 양육-입양의 경우는 69.3%가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아직 생각이 정해지지 않은 유형에서도 68.2%가 양육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초부터 입양을 결정하지 않은 미혼모들에게 있어 경제적 지원은 확실히 양육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혼모와 그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할 경우에도 이러한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입양 유형의 경우 사회적 편견이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양육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60.3%였던데 비해, 양육-입양의 유형에서는 70.6%, 아직 생각이 결정되지 않은 유형에서는 63.6%가 양육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0〉 자녀계획 유형별 경제적 지원 제공시 양육의사

(단위: 명, %)

구분	경제적 지원 제공시				사회적 편견 개선시			
	양육할 의사가 있다	양육할 의사가 없다	전체	$\chi^2(df)$	양육할 의사가 있다	양육할 의사가 없다	전체	$\chi^2(df)$
자녀계획유형								
입양→입양	25(30.9)	56(69.1)	81(100.0)	27.367(2) ***	31(39.7)	47(60.3)	78(100.0)	10.665(1) ***
양육→입양	61(69.3)	27(30.7)	88(100.0)		60(70.6)	25(29.4)	85(100.0)	
수시로변함	15(68.2)	7(31.8)	22(100.0)		14(63.6)	8(36.4)	22(100.0)	
전체	101(52.9)	90(47.1)	191(100.0)		105(56.8)	80(43.2)	185(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끝으로, 현재 미혼모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취업' 40.1%로 가장 많았고, '아기만 잘 키우고 싶다'(15.9%), '학업지속'(13.2%), '나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7.9%), '아기아버지와의 결혼'(7.5%), '자유로운 생활'(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유형 및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다'(22.9%)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아기만 잘 키우고 싶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세 이하의 미혼모들은 학업지속(24.8%), 20-29세 이하의 미혼모들은 취업, 30세 이상의 미혼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현재 가장 하고 싶은 일

(단위: 명, %)

구분	취업	학업 지속	아기아버 지와 결혼	나의 가족과 함께 사는것	아기만 잘 키우 고싶다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유로 운 생활	전체	$\chi^2(df)$
전체	219(40.1)	72(13.2)	41(7.5)	43(7.9)	87(15.9)	63(11.5)	21(3.8)	546(100.0)	
미혼모유형									
입양	96(45.7)	37(17.6)	7(3.3)	14(6.7)	5(2.4)	48(22.9)	3(1.4)	210(100.0)	110.076 (6)***
양육	96(33.8)	31(10.9)	31(10.9)	21(7.4)	78(27.5)	9(3.2)	18(6.3)	284(100.0)	
전체	192(38.9)	68(13.8)	38(7.7)	35(7.1)	83(16.8)	57(11.5)	21(4.3)	494(100.0)	
연령									
19세이하	39(24.2)	40(24.8)	20(12.4)	14(8.7)	20(12.4)	23(14.3)	5(3.1)	161(100.0)	80.067 (18)***
20-24세	81(46.6)	19(10.9)	10(5.7)	15(8.6)	18(10.3)	24(13.8)	7(4.0)	174(100.0)	
25-29세	65(56.0)	6(5.2)	6(5.2)	7(6.0)	19(16.4)	9(7.8)	4(3.4)	116(100.0)	
30세이상	34(36.6)	7(7.5)	5(5.4)	7(7.5)	30(32.3)	5(5.4)	5(5.4)	93(100.0)	
전체	219(40.3)	72(13.2)	41(7.5)	43(7.9)	87(16.0)	61(11.2)	21(3.9)	544(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20(29.0)	11(15.9)	6(8.7)	12(17.4)	7(10.1)	11(15.9)	2(2.9)	69(100.0)	50.997 (18)***
고졸미만	35(26.9)	27(20.8)	11(8.5)	8(6.2)	24(18.5)	22(16.9)	3(2.3)	130(100.0)	
고졸	97(51.3)	10(5.3)	11(5.8)	14(7.4)	29(15.3)	20(10.6)	8(4.2)	189(100.0)	
대학재학이상	64(43.2)	23(15.5)	12(8.1)	9(6.1)	25(16.9)	9(6.1)	6(4.1)	148(100.0)	
전체	216(40.3)	71(13.2)	40(7.5)	43(8.0)	85(15.9)	62(11.6)	19(3.5)	536(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V. 정책적 지원방안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혼모들의 입양 및 양육 결정은 상당 부분 그들의 가치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모들의 입양이나 양육결정 과정의 정책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지원정책이 매우 미진한 현실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결과이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 부족이나 현실 여건의 제약으로 양육을 포기하는 미혼모들은 이러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편견 개선 등의 정책 개입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자녀양육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육미혼모라 할지라도 미혼모가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와 성인기 미혼모에 대

한 지원방안은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성인기 미혼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것이다.

(1) 생계비 지원

성인기 양육미혼모에 관한 지원은 무엇보다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이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출산 직후부터 생존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적 과제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10대와 성인기를 막론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은 일정기간 자녀돌봄의 시간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설입소기간 동안 이들의 취업수준이나 급여액에 상관없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시설 밖의 재가미혼모들에게는 소득인정액을 상향조정하여 적어도 자녀가 3세 미만일 경우에는 초기 자녀양육과 함께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 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의료보호 및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은 미혼모들로 하여금 수급권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곧 이들의 취업 및 자립의지의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들의 자립을 방해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 물론 일원화된 수급권 자격을 수정하는 것은 기존 제도설계와의 충돌, 즉 기초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이나 격론을 야기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사회 최저출산의 해법이 자녀 돌봄의 적극적 지원밖에 없다는 점에서 합의도출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범위도 어린 자녀 돌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한부모의 생계비 지원자격완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자녀양육지원

미혼한부모 역시 사별이나 이혼한부모와 유사하게 혼자서 자녀양육 및 소득활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양육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한부모의 자녀양육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이 가능하다.

(가) 자녀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미혼한부모 역시 사별이나 이혼한부모와 유사하게 혼자서 자녀양육 및 소득활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것이 사실이다. 한부모가

족의 자녀양육비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8세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월 5만원의 자녀 양육비는 실질적으로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소득 가구로만 제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의 양육비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월 10만원 지원을 목표로 양육비지원을 현실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모부자 가족의 경우에는 결코 2인 생계부양자가구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후에는 최저생계비 150%가구로까지의 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이들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원은 등록금과 수업료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교복비용,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교재구입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등록금이나 수업료 이외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일부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기준에 의하면, 자녀 교육비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교육비 부담이 큰 대학생자녀에 대해서는 지원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양부모이든 한부모이든 대부분의 가족을 형성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길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이나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이들 자녀의 대학진학은 의미가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생 자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들 자녀의 대학입학금, 학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공부문이 아닌 기업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몇몇 기업의 출연금에 기초한 ‘희망만들기 지원재단(가칭)’ 등의 방식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사업방식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대학 진학을 미리 포기하는데서 오는 박탈감 등으로 일부 학교적응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대학교육비 지원 정책은 자녀의 상대적 박탈감 감소, 자녀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 이혼가족에 대한 경제적 기여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김혜영 외, 2006). 이들에 대한 지원이 특혜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다면, 대학당국이나 교과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자녀, 다문화가족자녀, 한부모자녀들에게 학비지원 아르바이트 우선알선 등의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보육문제이다. 장시간 노동하는 한부모 가족의 특성상 자녀들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홀로 방치되

기 쉬우며, 방학기간에는 이러한 돌봄 공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체감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또한 저소득 가족의 자녀를 위한 공부방은 사회적 낙인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이용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또한 필요하다.

대체로 여성한부모의 취업은 임시 일용직이거나 장시간 혹은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및 3교대 근무 등을 요구하는 불안정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무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야간이나 심야 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은 취업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학교 급식당번이나 긴급히 병원에 가야할 경우 등 일시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보육도우미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육시설은 월단위, 연간단위로 정기적 이용자 우선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보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탄력적 운영과 함께 한부모의 경우에는 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모역할 교육 및 이들 가족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미혼 부모들의 경우에는 원가족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원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권역별로 개소되어 있는 가족지원기관을 통해 미혼부모 및 한부모의 부모역할 교육과 자녀교육상담이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한부모가 많다는 점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역할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성한부모 뿐만 아니라 점차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주말이나 주중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양육자 관련 교육 및 자녀 연령에 맞는 훈육, 양육,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주거지원

미혼부모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한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 한부모 가족의 주거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6). 제도적으로 미혼부모시설이나 모부자시설, 영구임대주택 등의 방식으로 주거 지원이 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보호에 지속적으로 의존하

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임대주택이 직장이나 주변의 도움이 되어주는 친척들과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자녀돌봄과 직업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들은 더욱 임주를 결심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또한 최소한의 입주자금이 없어 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주거지원에도 선뜻 응할 수 없는 미혼부모 역시 적지 않음을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임대주택의 우선제공이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소규모 주택을 우선구매하여 이를 다시 미혼모나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임대하는 주거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최소한 안정적인 자녀양육의 쉼터는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자립지원 및 직업훈련 활성화

미혼부모에 대한 자녀양육지원과는 별개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현재 시설 수준에서 제공되는 취업훈련은 엄밀히 말해 직업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노동시장의 변화흐름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 비해, 20명 내외의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시장 변화에 조응하여 맞춤형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미혼모 시설과 여성전문취업기관(새일센터, 전문직업학교 등)의 적극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즉 기관차원에서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부처의 범위를 넘어 저소득 미혼모·부가 직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전문직업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욕구에 부합된 직업 및 취·창업 프로그램의 등록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양육미혼모가 관련 직업교육이나 취·창업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에도 아이돌보미를 우선 파견해줌으로써 미혼모·부의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고 이들의 취업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혼모·부가 소정의 취업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거나 취업에 성공할 경우 이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미혼모부의 성공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동시에 도모하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여성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몇 가지의 개선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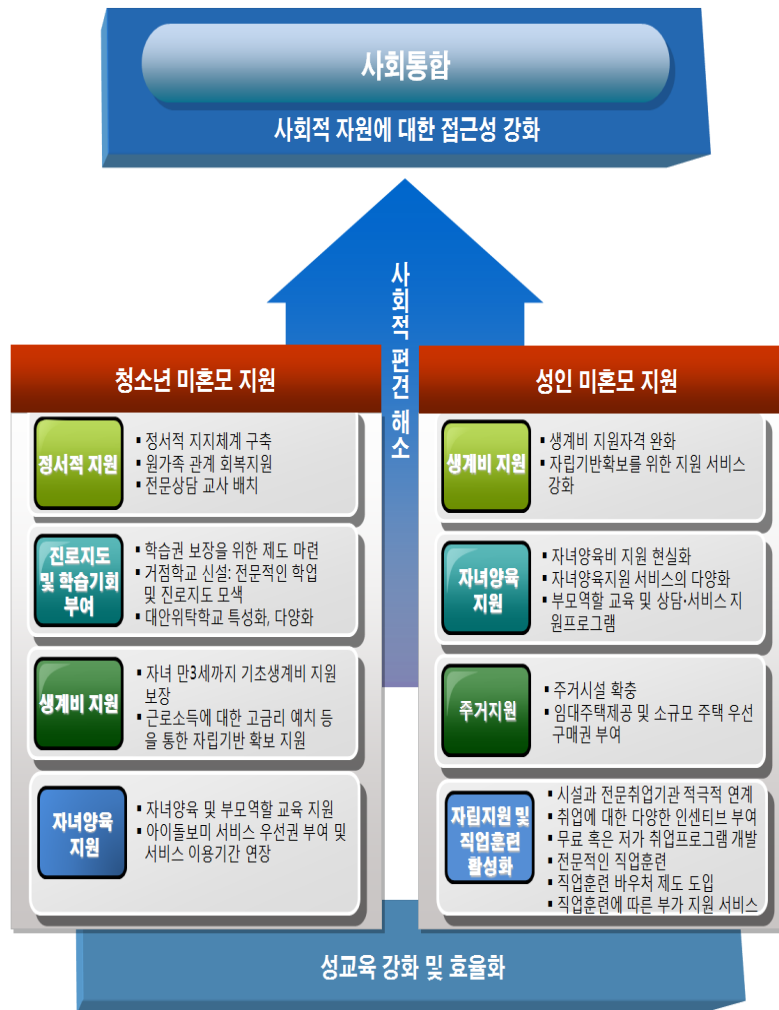
미혼부모의 경우에는 비취업상태거나 불안정한 노동시장진출입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업훈련제도만으로는 미혼부모를 위시한 여성한부모의 직업훈련기회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업경험이 없거나 취업경험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한부모를 배려하는 무료나 저가의 취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비정규직 시장의 확대는 지속적인 직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유연한 직업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숙련기능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교육을 통한 고기능적인 직업기술 숙련은 불가능하므로 민간교육훈련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기능,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위해 대학 등에서 훈련 받을 경우에도 직업훈련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끝으로 직업 훈련기관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용 쿠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는 대상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훈련비용 총액을 쿠폰으로 지급하고 원하는 직업 훈련기관에 쿠폰을 내고 훈련을 받은 뒤 기관은 쿠폰에 근거하여 정부에 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쿠폰제도를 통해 다양한 직업 훈련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기간에 제약도 받지 않으며,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과 더불어 상담 및 직무적성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를 패키지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장 훈련의 경우 대체로 단순한 기능숙련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같은 기능훈련만으로는 노동시장진입 및 생존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요리를 예로 들어보면 요리관련 자격증 이외에 고객관리, 정보화 등의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복합적 직업 훈련이 필요하며, 미혼모·부의 고학력화와 저연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노동시장 진입 및 생존 성공을 위한 업무 능력 향상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된 복합훈련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요컨대 특정한 업무만을 위한 단기간의 교육훈련보다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이론이 가미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단순 직업 기능 훈련만으로는 취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조직적응 훈련이나 필수적인 사무능력 훈련, 성취지원 프로그램 등이 취업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문제, 가족문제, 직업의식 등 상담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집단이므로 미혼모·부를 위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직업 훈련기관에 가족 상담 기능이 추가되거나 외부 가족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업훈련과 직무 및 적성, 의식 관련 상담 서비스가 패키지화되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부모 자립지원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정책의 방향을 도표화하면 아래의 <그림 7>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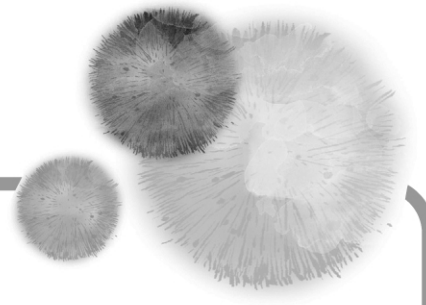
〈그림 7〉 미혼모·부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방향

참고문헌

- 김유경, 조애저, 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순, 김은영, 2008,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삶과 미래,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외,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하위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권 3호:117-133.
- 김혜영, 2008, “미혼모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안상수, 2009,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외, 2009, 「미혼부모와 그들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김혜영, 선보영, 정재훈, 김은영,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도미향, 정은미, 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권 2호:1-11.
- 문의승, 임애덕, 2006, “미혼모·미혼양육모와 입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논문집」 26집:393-422.
- 박복순, 전해정, 2007,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해설」2007 연구보고서(수시과제)-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순호, 1998, “한국 입양아의 미국내 입양의 사회·제도적 환경: 한·미 양국간의 입양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8호:76-92.
- 배영미, 2001, “청소년 미혼모의 기질과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8권 3호:45-70.
- 배태순, 1989, “한국 입양부모들의 입양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창간호:201-244,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석창훈, 학생미혼모 실태와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안순덕 외,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우병창, 2001,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 양자법의 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검토와 입법론 제언”,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169-202.
- 윤미현, 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은기수, 권태환, 2002, “한국유배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및 결정요인”, 「한국인구학」 25권 1호:5-32.
- _____, 2009, “국내외 입양과 미혼모복지”,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삼식, 1998,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원, 김만지, 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재훈(2003),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성차별적 특성 분석: 독일 보육수당·휴가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22, 2003 가을, 257-289쪽.
-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87, 「미혼모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노동자회, 국회의원 홍미영 의원실, 2006 「한부모 빈곤여성 자립정책 진단 및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 한인영, 1998,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
- 허남순, 2006,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홍순혜 외,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Institute for American Values, The Age of Unwed Mothers, 1999.
- Lee, Bong Joo, 2007, "Adoption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Inter -national Social Welfare*, 16:75-83.
- Barlow, Anne(2007), "Rollenleitbilder im Familienrecht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in: BMFSFJ(2007), *Eigenverantwortung, private und öffentliche Solidarität - Rollenleitbilder im Familien- und Sozialrecht im europäischen Vergleich*, Nomos Verlag, S.234-257.
- Freud, David(2007), *Reducing Dependency, Increasing Opportunity: Options for the Future of Welfare to Work. An Independent Report to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Leeds, Corporate Document Services.
- Leitner, Sigrid(2003), "The Caring Funktion of the Family", Paper presented at the ESPAnet conference "Changing European Societies - The Role of Social Policy", 13-15 November 2003, Copenhagen, pp.1-30.
- Martin, C./Vion, A.(2002), "Lone Parent Families, Work and Social Care", EU-Soccare Project, Work package 2.
- Millar, Jane (2003), "Social Policy and Family Policy," in: Alcock, Pete u.a. (2003), *Social Policy*, Blackwell Publishing, Oxford, pp. 153-159.
- ONS(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8), *Social Trends* 38.
- Opielka(2004), *Sozialpolitik*, Rowohlt Taschenbuch Verlag, Hamburg.
- Polakow, Valerie et.al.,(2001), *Diminished rights: Danish lone mother families in international context*, Policy Press.
- Sainsbury, Diane(1994), "Women's and men's rights: gendering dimensions of welfare state," in: Sainsbury, D.(ed.), *Gendering Welfare State*, Sage Publications.



목 록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에 대한 토론문

- 미혼모관련 통계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 -

조 영 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관심은 이 인구집단이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미혼모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이들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크게 만들어 이들의 삶이 이중적인 난관(double jeopardy)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해왔기 때문에 미혼모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혼모라는 말 자체에 “출산”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저출산 현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담론들 가운데 미혼 임신과 출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출산력이 증가하여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미혼 임신과 출산은 일반화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까지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혼모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국내에 이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통계들을 대상으로 과연 미혼모 관련 통계의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한 본 연구의 중요성은 학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미혼모와 관련한 정보들이 과연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 통계들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미혼모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본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혼모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고 그 상태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미혼모의 개념은 그리 복잡하지 않고, 실제로 이 개념을 적용할 때 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계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사회

조사이다. 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들의 status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난이 그동안 너무나 컸기 때문에 조사자체가 쉽지 않다. 설사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모집단의 파악이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가 모집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점에서 최소한 미혼모의 규모가 연령별로 지역별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토론자의 견해로 볼 때 2010년에 실시될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가 이 인구집단의 모집단 규모와 기초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정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2005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미혼모라는 status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조사도 조사원이 직접 조사 대상자를 만나 면접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통계 산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아직 조사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혼모 자녀출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수정할 수 있고, 이 작업은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사의 방법인데, 면접조사에서는 대상자가 미혼모임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이전의 조사들이 면접조사를 주된 조사방법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조사를 조사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즉 조사원의 가정 방문과 면접 보다는 인터넷으로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표에 응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오는 이들 인구집단이 본인의 미혼모 status를 노출하기 꺼려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극복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만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미혼모들의 전국적인 규모와 기본적인 특성이 파악된다면 이 자료는 미혼모와 관련한 학문적 접근은 물론이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다음 두 가지의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미혼여성도 자녀 출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문항을 일부 수정하는 일이다. 인구주택총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요구는 물론 필요하다면 정치적 압력까지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미혼모와 가족들이 면접원과의 접촉없이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인터넷 조사에 적극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타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부각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혼 임신과 출산은 앞으로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준비와 대응은 이 인구집단의 규모와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미혼모에 대한 기초통계 생산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자녀를 입양 보낸 미혼모들의 상실’에 대한 토론문

신 예 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국 사회는 혼전 또는 혼외 임신에 범죄나 다름 없는 낙인을 찍는다. 대다수가 낙태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연간 35만 건의 낙태 중 42%인 14만여 건이 미혼여성들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혼전 또는 혼외 임신을 한 뒤 아이를 낳아 미혼모가 되는 여성은 이들 중 극히 소수다. 또한 미혼모가 된 여성 중에서도 70%가 아이를 입양 보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양육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낙태든 입양이든 이들 여성이 뱃속에 든 소중한 아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다. 한국 사회에선 미혼모가 되는 순간 3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 전반의 차별, 가족·친구·직장·학교로부터의 소외, 그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가 그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며 아기를 키우는 것보단 아기를 포기하고 새 삶을 찾는 것이 여성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사회통념이다.

그러나 최승희 교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이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보다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의 슬픔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보다 입양으로 자녀를 포기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하긴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형편이 이런데도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여성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설립자이자 대표인 리처드 보아스 박사가 들려준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아스 박사는 이번 포럼을 후원하는 등 헌신적으로 국내 미혼모의 권익 향상 활동을 펼치는 분이다. 보아스 박사는 1988년 한국에서 딸을 입양했고 그 경험을 계기로 은퇴 후인 2005년부터 국제입양 지원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6년 한국 대구에 있는 미혼모시설을 방문해 10여 명의 미혼모들을 만난 뒤 큰 충격

을 받았다고 한다.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쓴 10대, 20대 젊은 임신부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너무 슬퍼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크나큰 슬픔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만 봐왔던 자신을 자책했고 그 결과 아기를 낳아 스스로 키우는 미혼모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미혼모 모임인 ‘미스 맘마미아’가 주최한 워크숍과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가 엄마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 박사는 3년 여 전 대구 미혼모 시설에서 봤던 임신부들의 슬픈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고 한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자라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은 없다는 확신을 재차 갖게 됐다는 얘기였다. 엄마가 자기 아기를 기르는 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이를 침해 당하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입양으로 인해 비단 엄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해외 입양을 보내면서 많은 미혼모들이 자기 아이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출신 입양아들에 대한 심층 연구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1953년 이후 2008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16만3000명의 한국 아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성장기에 갖가지 인종 차별을 당했고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은 걸로 나타났다. 그래서 스스로 백인이라고 여기거나 차라리 백인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의 78%나 됐다. 이것만 봐도 이들이 견뎌온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엄마와 아기들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미혼모가 겪는 3중고 중 사회적 차별과 가족·친구의 냉대는 국민 정서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도 시급히 손봐야 한다. 미혼모라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일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일이 없는 미국에선 자녀를 포기하는 미혼모가 1%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짓고 다양한 출산 및 보육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독 미혼모만은 그 예외로 남아 있다. 미혼모 지원 예산을 늘리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미혼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큰 사회에서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미혼모가 될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2009년 위기가정 지원책의 일환으로 미혼모 지원 예산이 처음 생기긴 했는데 그 규모가 성매매 여성 자립 지원 예산보다 작았다. 미혼모들이 “우리가 성매매 여성보다 못하냐”고 자조할 지경이다.

아기 아빠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에선 국가에서 개입해 아기 아빠의 수입 정도에 따라 양육비를 내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성관계와 임신이 줄어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이한 명이 귀한 나라에서 미혼모라고 차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엄마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에 대한 토론문

이 명 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1. 들어가며

미혼모들의 경험담을 보노라면, 현행 입양기관이나 입양을 의뢰한 친부모, 입양을 할 예비 양부모들이 민법이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양과 관련된 법규정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경험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입양상담서비스는 모든 입양기관이나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 양부모될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례에 불과하므로 입양이 모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양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경험담을 중심으로)

가. 친권자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친부(혹은 생부)이고, 어머니는 친모(혹은 생모)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친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각자 친권을 가지게 되고 당연한 결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구체적으로 친권에 따른 양육권, 법정대리권,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민법 제 913조 내지 923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부모가 사망한 경우 ②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③ 협의이혼 시 당사자간의 협의로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④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되어 양부모가 친권자로 된 경우 ⑤ 가정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 신고를 받은 경우 ⑥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 등의 신고를 받고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는 친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나. 친권포기서 관련 검토

이처럼, 우리 민법상 친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고, 민법이나 입양특례법 기타 어느 법에서도 친권포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경험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친권포기서’는 무슨 법을 근거로 입양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입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친권포기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단지 임의적으로 편의상 요구하는 서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입양기관은 ‘아이 아빠와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아이 엄마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류 작성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실제로 친부가 나타나 친권을 행사할 경우 그 입양은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입양이고, 친부는 얼마든지 입양무효를 주장하여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친부모가 입양시 동의서를 작성한 적법한 입양이라 할지라도 입양 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친권포기서를 작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에 따른 입양에 동의했기 때문이고, 입양이 성립되어 양부모가 친권자로 되었기 때문이다.

다. 입양대기기간 동안의 친부모의 권리

경험담에 의하면, 입양기관에 자녀의 입양을 의뢰하여 맡긴 후 되찾아오기까지 입양기관의 비협조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은 친부모의 입양동의와 양부모의 입양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입양대기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친부모가 입양의사를 철회하고 자녀를 되찾아올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은 입양기관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아인도 및 인도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라. 입양 후 입양취소, 입양무효

(1) 입양취소

입양 후 입양취소는 입양되어 6개월 이전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친부모로부터

이탈된 자가 입양되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입양 전에 친모가 입양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 없이 출산을 앞두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입양을 서둘러 결정하였다면, 게다가 경험자들의 발표처럼 입양기관과 30분 정도, 5분 정도의 상담으로 입양을 결정하였다면, 민법상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입양을 앞 둔 친부모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고려기간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입양의 무효

입양이 친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졌거나 두 사람 모두의 동의 없이 제3자(예컨대 미혼모의 부모)의 동의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며, 기타 입양특례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효 주장을 할 수 있고, 입양 무효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입양의 무효를 주장하여 자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미혼모와 친부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

친부가 자녀를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미혼모는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성과 본 이름 등을 기재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친부에게 자녀의 양육을 원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할 수도 있다. 미혼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친부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양육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미혼모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면접교섭을 요구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녀를 둘러싼 일체의 권리는 자녀가 20세가 되기 이전까지에 한한다.

3. 글을 마치며

이상 입양을 서둘러 결정했다가 되찾아 오면서 겪은 미혼모들이 입양 경험담을 토대로, 입양에 대한 법규정을 검토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확한 법률상식이 제대로 알려져야 할 뿐 아니라, 입양을 둘러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제대로 된 입양관련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문

임 애 덕 (애서원 원장)

1. 가치관, 그리고 법제 환경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혼인을 전제한 부모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에서 미혼 양육모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숨막히는 일이다. 그래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미혼모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은 매우 큰 발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대상자중 사실혼 관계는 제외라는 괄호의 규정을 정한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에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미혼이건 기혼이건 간에 그 자녀, 즉 아동을 중심으로 가치관이나 법제를 정의할 수 있다면 미혼부모자의 문제는 더 쉽게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혼 양육모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양육을 선택한 뒤 대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가끔 혼란을 경험한다. 경험적으로 양육의 어려움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최근 많이 달라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미혼양육모를 수용하는 드라마들을 선보이고 있어서 사실 양육미혼모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양육모자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차가운 사회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학력수준이 높은 미혼 양육모들은 해외로의 취업 이민을 고민한다. 미혼모자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미혼모자를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배타하고 사회에서 추방하는 셈이다.

이런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정부정책, 언론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체적인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자녀가 어릴 때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보통 미혼양육모의 경우 저학력, 무기술,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노동보다는 그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유아보육기관은 정확히 12시간 탁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12시간 탁아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운영규정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은 미혼모자, 한부모자, 맞벌이 여성의 문제를 동시에 짚을 수 있는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다. 찾아가는 아기 돌보미의 문제를 더 확대하거나 아동보육을 위한 그룹홈 시스템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이 좀 더 컸을 경우 자녀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지원서비스의 다양화를 논의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들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학교 방과 후 교실이 이용 가능하지만 1일 1시간정도만 이용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여성에게 자녀 양육지원이 취약해진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이용 가능하지만, 열악한 운영 때문에 분반이 안 되고 집단 슬럼화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가능하지만, 수요가 많아서 대기가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현실적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3. 부모 역할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지난 10여 년간 많은 상담 기관들이 생겨났지만, 사회적 문제와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문상담기관들이 더 생겨나고 인력들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회적 욕구는 줄어들지 않는다. 게다가 문제가 노출되기 전 사전예방으로 기관을 찾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시간과 경비 등으로 찾아가지 않으므로, 각 직장 내 찾아가는 아버지, 어머니 교육이 필요하다. 직장이 없는 경우 학교 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경우 부모님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4. 주거지원

미혼양육모자의 작은 소망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런데 일정 금액을 확보해야하며, 그 금액을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거하여 아동이 만 24개월 미만의 경우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양육모가 생계비이상의 직장을 구할 경우 생계비가 삭감되어서 결국 직장이나 생계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결국 미혼양육모들이 가장 유리한 환경은 그룹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직장을 구

하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 80% 이상 소득을 저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TANF처럼 탈 시설이 될 경우에도 생계비 지원 시 한시적 소득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5. 학업지원에 대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자녀 취학시 만 22세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학까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별로 적용범위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부모자녀의 경우 2009년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대학입학금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경북지역 도 대학입학금 200만원, 전북은 150만원, 충남은 65만원, 강원도 150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이나 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관된 행정지침이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원에서 조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자립지원 및 직업 훈련 활성화

이미 다양한 직업훈련을 위한 사회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면 매우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직에 있는 인력들이 안내를 잘 해야 할 것이다. 고용 안정 지원 센터를 통한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자활프로그램 등은 시장 내 다양한 직업훈련기관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자활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양육미혼모들의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취업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활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 편입될 경우 장기 자활훈련대상자가 되기 쉬운 위험이 있다. 그런 경우를 탈피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인 특수 전문직 기술훈련으로 모두 바꾸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문

정 속 영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

오늘의 포럼주제인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귀중한 발표를 해 주신 네 분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미혼모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한국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본 토론원고에서는 발표 주제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미혼모 자립지원을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언급하신 각각의 주제에 대해 현실 속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1.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

발제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혼모에 대한 통계의 부재는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근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미혼모 스스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은 사회풍토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혼모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화두에 오른 지금 그 대상인 미혼들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미혼모 자녀 양육 문제를 주로 입양으로 해결하였고 이들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모색하는데 인색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것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편견이 강하다는 점은 이미 국제비교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세계 가치관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정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며 전체 36개국 중 3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동아일보(2007)인터넷판 세계 가치관 조사(2005~2007)에서 재인용>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혼모의 자녀출산과 양육 문제는 미혼모 자신은 물론 그들의 자녀와 원가족, 나아가 미혼부와 그들 가족생활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미혼모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책대상 집단인 미혼모의 수와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구축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

본 원고의 사례를 통해서 먼저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미혼모에게 있어서 자식에 대한 양육의지는 어느 일반 산모와도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년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자녀인 반면 경제적 지원만 있다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자녀 양육의 기회를 먼저 확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009.10.12/충대신문(미혼모, 그들에 대한 편견 지우기-서울여대 홍순혜 교수) 인용>은 주장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기관의 상담 서비스는 미혼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미혼모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부각시켜 입양을 조장하고 있다는 데에 자국민으로서 부끄럽다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지난 해 12월 6일 방송된 KBS 2TV ‘일요일 밤으로’에서는 ‘50년 동안 해외입양아 수출국 한국’을 조명하면서 국내 입양기관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은 입양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혼모자의 인권과 복지에 관심으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겠습니다.

3. 입양을 보낸 미혼모들의 상실과 슬픔

미혼모 자녀의 입양이 80% 정도에 이르는 현실에서 자녀를 포기한 미혼모들의 심적 고통을 인식해 보게 되는 주제입니다. 입양에 대한 문제는 앞서서도 언급한 것이지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인 자립능력 부족으로 양육을 포기하는 미혼모에게만 굴레를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순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해외입양 문제와 관련된 운동을 하며 미혼모 가정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는 단체인 TRACK의 주요 후원자인 44세의 프랑스인 그렉(Greg Peña-Rodriguez)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그는 “한국은 더 이상 아이들을 해외입양을 보내야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지만 과거의 입양 경험을 통해 공고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통해 여전히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해외입양을 통해 발생한 '비극'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 역시 한국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어서 “남성이 저지른 일은 생각지도 않고 미혼모들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그들을 사회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야 말로 단순한 인권 보호 차원을 뛰어 넘어, 입양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리인 자신의 자식을 키울 권리에 대한 만행과 싸워 첫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2009.11.25 중앙일보 [해외입양인, 말결기] 한국 미혼모를 후원하는 프랑스인 그렉 인터뷰 인용>

그의 주장대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개선되어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지금보다는 미혼모 자녀의 입양으로 인한 상실과 슬픔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4.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지원방안

김혜영 박사님과 선보영 연구원님의 주제원고를 읽으면서 미혼모에 대한 삶의 실태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그들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명쾌하게 지적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에 제시한 대로 양육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인 생계비 지원과 자녀 양육지원, 주거 지원 및 직업교육 강화야 말로 양육미혼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 생계비 지원

발제자가 지적하신대로 양육미혼모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이들의 자립기반의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부여되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즉 시설 밖의 재가 미혼자에게는 소득인정액의 상향조정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미혼들의 취업 및 자립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녀양육지원

먼저 자녀양육비 지원의 현실화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소득가구에 한하여 월 5만원 지급되는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원고에서 제시한 대로 지원금액과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비도 실비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의지를 갖고 예산에 반영시켜야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활성화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대로 미혼부모시설이나 모부자시설 등이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혼양육 모나 부를 위한 소규모공동생활 가정을 지역별로 더 많이 확대하여 아동을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는 기술을 배우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양육미혼모나 부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전세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양육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정책방향의 주요골자는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발제내용을 발췌 인용하였습니다.

첫째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특히 혼전에 임신한 여성이라는 편향적 사실만을 강조하여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되어야 하고 관계자 모두 공동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혼모 정책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강화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임신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미혼모 전용 대안위탁교육 운영하거나 기존의 대안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자체 교육청의 적극적 협조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까지 한국의 미혼모정책은 미혼모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입양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자녀에 우선시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자녀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미혼모로서 이들의 부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양육미혼모 취업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 위해서는 취업 훈련 중에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취업 후 생활안정이 될 때 까지 최소 2년간 의료보호혜택과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친부의 양육비 지급 법제화’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혼모 발생의 공동 책임인 친부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아 동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 어

오늘 포럼 주제로 발제하신 내용은 양육 미혼모의 사회경제적 복지환경의 현주소를 되새

겨 보고 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매우 바람직한 자리입니다. 실천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 부처간 유관기관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오늘의 포럼과 같은 작은 노력들이 모여 미혼모자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사회 및 정부의 관심으로 다양한 가족들이 당당한 삶의 주체가 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문

조 은 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 총평에 앞서 오늘 포럼을 준비하신 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방안에 관해 체계적이고 심도깊은 연구·발표 및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낙태에 관한 논란과 저출산 문제와 연관하여 미혼모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에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러차례 미혼모 지원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정책제안과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 1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 관련 통계

- 미혼모에 관한 정책을 검토할 때 어려웠던 점은 관련 통계자료가 미흡한데 있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그 원인(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구주택총조사 및 출생통계 등 정부통계자료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 향후 미혼모 정책은 양육미혼모 지원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양육미혼모 수(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 예방 및 입양 위주의 소극적 정책에서 미혼모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입안을 위한 관련 통계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우선 서울시에서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09년 6월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존 저소득층 및 시설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지원에서 미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의 사례관리와 위기개입을 통해 정서적지지 강화 및 위기발생시 긴급지원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미혼모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가 미혼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병원비 및 생필품 제공 등), 자조모임 운영, 정서적 지지를 위한 문화활동, 지속적인 사례관리,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표 2 자녀를 입양보낸 미혼모의 상실과 슬픔

- 입양보낸 미혼모의 슬픔에 관해 좀더 전문적인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에 관한 관심의 필요성과 미혼모의 슬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과 실천적 개입에 관한 일곱가지의 제언을 하셨습니다.
- 제안하신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강화, 시설퇴소후 사후관리 등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시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시설 및 입양기관의 직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도 매년 한부모시설연합회를 통하여 시설장 및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발표 3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

- 입양을 생각했다가 양육을 결정한 어머니들의 경험과 입양기관의 문제점에 관해 생생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양을 보내고 후회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고 양부모 가정도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든 현실에서 양육미혼모들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에 더욱 힘들것입니다.
- 하지만 제가 만나본 양육미혼모들은 힘들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미혼모 시설확대

- 우선 서울시에서는 미혼모 관련 시설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지원하는 2개소(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를 포함 현재 서울시에 11개의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미혼모자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4,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1)
- 이곳에서 200여명이 넘는 미혼모 가족이 자립의 꿈을 키워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시설에 입소하는 상당수가 미혼모가족인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미혼모가족이 보호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미혼모특수치료비, 퇴소자자립정착금(4백만원), 프로그램비, 정보화교육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특히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들의 경우 가족관계, 심리적 위축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치료지원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1억 2천만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현실적으로 입양기관에서 미혼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하신것처럼 입양권유보다는 양육위주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양육을 고민하는 미혼모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상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4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지원 방안

○ 양육미혼모의 특성, 미혼모들의 입양 및 양육 결정요인 등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하여 의미있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를 구분하여 정책제안 하신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상집단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양육부담경감 및 미혼모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돌보미 추가 지원

○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나’형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중 한부모가정은 이용요금의 50%를(전액시비)추가지원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이용요금(1시간당)			
유형	소득 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1%~100% 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한부모가정 2,000원
다형	100% 초과	5,000원	—	5,000원	

임신·출산·양육 미혼모 멘토링 : “양육미혼모와 친정엄마 맺기”

○ 임신,출산,양육과 관련 경험이 없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미혼모들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정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줄 봉사자와 미혼모가 1:1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담, 양육 등 삶의 전반에 관해 코칭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취약한 미혼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

○ 임신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 후 양육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미혼모들은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 빈곤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으며

- '0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미혼모 87%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서 상반기중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 검정고시 지원은 물론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및 심리상담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미혼모가 지닌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의 어려움, 입양에 대한 심리적 상실감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및 사회적 편견을 시정하기 위한 인식개선 운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보건복지부 향후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미혼모 지원을 위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EMO

❖❖❖ MEMO
